통일신보

무 소 속 대 변 지 제53호 【루계 제2521호】

주체107
(2018)년12월
22일
토요일
음력 11월 16일

절세위인의 향도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민족최대의 추모의 날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민족최대의 추모의 날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과 부장들, 부서 책임일군들을 비롯한 당중앙위원회 간부들이 참가하였다.

조국과 인민, 시대와 혁명앞에 영구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순결무구한 충정과 그리움의 마음이 끝없이 달려오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은 숭엄한 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립상이 모셔져있는 홀에 들어서시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립상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공동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에 들어서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혁명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하시면서 삼가 인사를 드리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조국과 인민앞에 한없이 고귀한 혁명업적을 남기신 위대한 장군님의 성스러운 한생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시며 7년전 이날 위대한 장군님의 령전에서 맹세다진대로 우리 당은 지난 7년세월 장군님의 사상과 로선, 장군님식 혁명원칙을 고수하고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왔다고 하시면서 앞으로도 전당이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전사로서의 의리와 본분을 지켜 한치의 드딤도 없이,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장군님의 구상과 념원을 끝까지 실현하기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가자고 호소하시였다.

본사기자

인민적령도자의 고결한 한평생
여러 나라 출판보도물이 칭송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 선생으로 여기시고 인민을 위한 헌신의 길을 쉬임없이 이어가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고귀한 생애를 여러 나라 출판보도물이 칭송하였다.

로씨야신문 《자브뜨라》는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일령도자의 한평생은 흰눈과 같은 순결한 생애였다.

그이께 있어서 자신을 위한것이란 하나도 없었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늘 수수한 잠바옷을 입으시고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에서 쪽잠으로 피로를 푸시면서도 도처에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공장들과 새 집들, 문화휴식터들을 일떠세우도록 하시였다.

조국앞에 공을 세운 사람들을 위해서는 많은 기념비와 동상들을 세워주시면서도 자신을 위해서는 동상하나 세우지 못하게 하시였다.

먼 외국방문의 길에서도 두고온 인민들을 생각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생애의 마지막시기에도 인민사랑의 현지지도길에 계시였다.

에짚트신문 《알 아흐바르 알 마싸이》는 이렇게 서술하였다.

김정일각하의 한평생은 세차게 타오르는 불길과도 같은 한생이라고 할수 있다.

특히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해인 2011년은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강철의 의지와 초인간적인 정력으로 자신을 불태우신 한해였다.

김정일각하께서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하여 2011년 온 한해를 앞장에서 걸으시였다.

그토록 열렬한 조국애와 숭고한 인민관을 지니신 절세위인의 헌신에 의하여 그해에만도 조선에서는 세인을 경탄시키는 기적과 혁신들이 련이어 창조되였다.

인도네시아신문 《인터내셔널 메디아》는 위대한 김정일각하는 인민을 굳게 믿고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조선을 이끄신 진정한 인민의 령도자이시다, 력사의 모진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인민대중중심의 조선식사회주의가 온 세상에 빛을 뿌릴수 있은것은 그이의 탁월한 령도력이 있었기 때문이다고 강조하였다.

브라질선군정치연구쎈터는 인터네트홈페지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한평생 이 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인민들의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시였으며 그에 저촉되는것은 사소한것도 허용하지 않으시였다.

그이의 뜨거운 인민사랑을 전하는 전설같은 이야기들을 다 말하자면 끝이 없을것이다.

이처럼 인민을 사랑하고 인민을 위해 자신을 깡그리 바치신 령도자를 인민들이 어찌 진심으로 받들고 열화와 같이 흠모하지 않겠는가.

령도자의 서거에 접하고 견디기 어려운 슬픔속에 몸부림치던 조선인민의 모습은 전세계를 감동시켰다.

나이제리아신문 《나이제리언 오브저버》는 이런 글을 편집하였다.

김정일각하께서는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인민의 리익을 모든 사색과 활동의 출발점으로 삼으시였으며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였다.

한없이 소박하고 겸손하며 소탈한 인민적품성을 지니신 그이께서는 자신을 근로하는 인민의 아들이라고 하시면서 수천척 지하막장에도 들어가시고 험한 포전길도 걸으시였으며 인민들의 이야기도 허물없이 들어주시였다.

참다운 인민적령도자로서의 그이의 숭고한 영상은 조선인민과 세계진보적인류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될것이다.

캄보쟈신문 《노코르 톰 데일리》는 《위대한 김정일대원수각하의 서거 7돐에 즈음하여》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렇게 전하였다.

김정일령도자는 한생을 순결하게 사신분이시다.

인민의 행복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신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생애의 마지막시기에도 현지지도의 길에 계시였다.

그이의 희생적인 헌신에 의하여 조선에서 사회주의가 수호되고 강국건설의 전환적국면이 열리게 되였다.

절세위인의 고결한 생애는 조선인민과 세계진보적인류의 심장속에 영원히 간직되여있다.

본사기자

흰눈에 어려오는 고귀한 한생

흰눈이 소복이 내리는 12월이다.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12월의 흰눈은 한갖 자연의 눈만이 아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헌신의 한생이 어려오고 절세위인에 대한 그리움을 더해주는 흰눈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흰눈덮인 백두산에서 빨찌산의 아들로 탄생하시여 백두의 눈보라속에서 성장하시였다. 그이의 시야에 처음으로 비낀 자연의 모습은 밀림을 뒤덮은 흰눈이였다. 군복우에 쌓인 눈을 털며 고향집에 들어서시던 부모님들을 보시며, 선혈을 뿌리며 백설광야에 묻혀 돌아오지 못한 눈에 익은 빨찌산대원들을 생각하시며 그이의 흰눈세계가 시작되였는지도 모른다.

흰눈에 대한 그이의 남다른 정서는 흰눈철학이라는 숭고한 인생관을 낳았다.

흰눈철학에는 추위가 닥쳐오면 소리없이 내리고내려 언땅을 포근히 품어안아주고 따스한 봄날이 오면 고스란히 녹아 그 땅에 풍만한 생명수로 스며드는 흰눈처럼 자신을 깡그리 바쳐 나라의 부강번영을 안아오시려는 그이의 크나큰 헌신의 세계가 어리여있다.

하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흰눈처럼 순결하고 정갈하며 래일을 위해 자기를 바치자는 인생관을 지니시고 한평생 오로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바치시였다.

167만 4 610여리, 지구둘레를 근 17바퀴나 돈것과 맞먹는 이 수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애의 전기간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이어가신 현지지도로정의 총연장길이이다. 이 머나먼 길이 결코 평온하고 순탄한 길인것은 아니였다. 가장 험난하고 힘겨운 길, 정신육체적극한점을 이겨내고 력사의 모진 풍파도 헤쳐야 하는 시련의 길이였다. 지어 희생까지 각오해야 하는 사생결단의 길이였다.

지금도 그이의 애국헌신의 로정을 더듬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것 같은 이야기가 떠오른다. 어느해 겨울 그이께서는 파도가 광란하는 험한 날씨에 쾌속정에 오르시였다. 각일각 더 험악해지는 바다날씨에 자그마한 쾌속정으로 항해한다는것은 참으로 위험천만한 일이여서 수행원들이 단념하실것을 말씀올렸다. 하지만 그이께서는 우리가 언제 순풍에 돛을 달고 다닌적이 있는가고, 섬에서는 초병들이 나를 기다리고있다고 하시며 앞장에서 배에 오르시였다. 배가 급경사각도로 솟구쳤다 내리꽂히고 뒤척이는 속에 수행원들은 제몸도 지탱 못했고 촬영가들은 촬영기마저 떨구어 그 력사적인 순간도 놓치였었다. 배가 기슭에 도착하여 모두가 살아있는것이 꿈인가싶어하는 시각에 그이께서 만은 사람들이 걱정한것보다 바다가 인상이 좋다고 하시였다고 한다.

이런 위험한 순간과 고비들은 풍랑사나운 배길만이 아닌 오성산의 칼벼랑길을 비롯하여 위대한 심장의 박동과 함께 흘러간 시간들마다 기록되여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언제나 휴식을 잊고 사시였다.

그이의 사업시간은 새벽부터 다음날 새벽까지였고 활동령역은 인민군초소와 공장, 농촌들 그리고 교육 및 과학연구기관들과 인민이 사는 모든 지역이였다. 그런것으로 하여 그이께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필요하시였고 이때문에 생신날마저도 나라와 인민을 위한 현지지도의 길에서 보내시였다. 오로지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에 대한 확신,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시였다는 숭고한 사명감으로 심장을 불태우시며 달리는 승용차와 렬차에서 쪽잠으로 휴식을 대신하고 쉐기밥으로 끼니를 에우시며 날과 달을 보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비범한 예지와 특출한 령도력, 강철의 의지와 초인간적인 헌신에 의하여 공화국은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반사회주의공세로부터 조국의 안전과 인민의 행복을 믿음직하게 수호하고 강국건설의 활로를 힘차게 열어나갈수 있었으며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도 밝은 앞길이 펼쳐지게 되였다.

흰눈덮인 백두산에서 탄생하시여 세월의 비바람, 눈보라를 다 헤쳐오시며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날에도 인민행렬차를 타시고 눈보라속을 달리신 장군님의 생애는 위대한 혁명가의 가장 빛나는 한생이였으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절세의 애국자의 가장 고결한 한생이였다.

오늘 위대한 장군님의 생전의 뜻과 위업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여 애민헌신의 력사가 줄기차게 흐르고있다.

본사기자 김철진

통일애국의 빛나는 생애

우리 민족이 낳은 김정숙녀사는 항일의 녀성영웅, 백두의 녀장군으로 오늘도 겨레의 마음속에 영생하신다.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한생을 바치신 녀사께 있어서 간절한 소원은 조국통일이였다.

나라가 해방된 후 외세에 의한 분렬은 우리 민족에게 강요된 커다란 불행이고 비극이였다.

우리 민족이 하나로 되느냐, 영구분렬되느냐 하는 복잡다단하고 첨예한 정세가 조성되였던 그 시기 녀사께서는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민족단합과 조국통일실현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힘과 열정을 다 기울이시였다.

나라가 해방은 되였으나 남북이 갈라지고 정세가 복잡한데 어찌 한 시인들 제자리를 떠나겠는가고 하시며 일가친척을 찾는것도 뒤로 미루시고 민족통일실현에 전념하신 녀사이시였다.

김정숙녀사께서는 우리가 장군님을 모시고 산에서 피흘려 싸운것은 전 조선을 해방하기 위해서였는데 남조선인민들을 외세의 구두발밑에 두고서야 어떻게 발편잠을 자겠는가 하시며 백두광야에서 항일의 전장을 누비시던 그 걸음으로 조국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길을 걷고걸으시였다.

민족의 분렬이 얼마나 가슴아프고 통일이 얼마나 마음에 걸리시였으면 녀사께서는 사람들이 좋은 옷을 하나 해입으시라고 권하여도 통일이 되여 모든 겨레가 다 같이 잘입고 잘살게 될 때 좋은 옷을 해입자고 하시며 사양하시였고 사진을 한장 찍으시자고 청하여도 통일후에 남녘동포들과 함께 찍으면 더 좋을것이라고 하시며 자신의 일신상과 관련한 일은 모두 사절하시였다.

민족을 사랑하고 통일을 생각하는 녀사의 마음은 그처럼 강렬하시여 모든 사색과 활동은 통일을 위한 일념으로 불탔다.

새 민주조선의 혜택아래 물걱정을 모르고 농사짓는 농민들을 보시면 동이로 물을 길어 농사짓는 남녘동포들의 정상을 그려보시였고 진정한 자유와 권리를 향유하는 녀성들을 대할 때면 외세의 학정아래 몽매와 무권리속에 신음하는 남녘녀인들의 불행한 처지에서 분렬의 비극과 통일의 절박성을 가슴아프게 절감하신 녀사이시였다.

김정숙녀사께서는 북과 남이 단결하여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거족적애국활동에 모두가 떨쳐나서도록 하시였다.

그 나날 녀사께서는 남조선의 애국적인 민주인사들을 비롯하여 통일애국에 사는 남녘동포들을 만나시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하나의 조선로선, 하나의 통일로선의 정당성에 대하여 알려주시였다. 그리고 그들의 의로운 애국활동을 고무격려도 해주시였다.

녀사를 만나본 몽양 려운형선생과 홍명희선생을 비롯하여 남녘에서 온 애국적민주인사들과 각계층 동포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통일로선을 받들고 통일애국의 길을 꿋꿋이 걸었다.

우리 시아버님(려운형)은 평생에 조선은 말할것도 없고 외국에서도 한다 하는 녀걸들과 이름떨친 녀류명사들을 많이 보았지만 녀장군이신데다 정치적식견과 안목이 뛰여난 정치활동가, 현숙하고 상냥하고 소박하고 소탈한 김정숙녀사 같으신분은 동서고금에 없다고 하였다고 며느리 로현숙은 지금도 자주 외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녀사께서 생전에 그처럼 절절히 념원하신 조국통일성업은 오늘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과 위업을 이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원대한 구상과 의지,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새로운 전환적국면을 맞이하였다.

절세위인의 숭고한 민족애와 애국헌신에 의하여 평화와 통일번영의 새 려정이 열리였다.

김정숙녀사는 오늘도 겨레의 마음속에 영생하시며 민족이 가는 평화번영과 통일의 앞길을 축복해주신다.

최진옥

격동과 사변의 한해를 돌이켜보며

어느덧 한해가 저문다. 소리없이 내리는 12월의 흰눈우에 어려오는 감회는 깊고깊다.

온 나라 가정들에 기쁨과 행복이 깃든 해였다.

사람들이 근면하고 성실한 땀과 노력으로 나라의 부강발전에 커다란 성과를 쌓은 의의있는 해였다.

북과 남이 손잡고 함께 걸어온 뜻깊은 사변의 해였다.

비약의 설계도를 마련하시여

올해에 전체 인민을 부강조국건설에로 힘차게 부른것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제시하신 새로운 전략적로선이였다.

시대의 요구와 변화된 정세추이를 통찰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화국의 국력과 지위 그에 비등된 인민의 의사와 지향에 맞게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선견지명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내놓으시고 그 실현에로 전체 인민을 이끄시였다.

경제발전에 국가의 인적, 물적, 기술적잠재력을 총동원하도록 할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과학적이며 독창적인 로선에 의하여 국가경제발전5개년전략수행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성대히 경축한 올해에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비약적인 성과가 이룩되게 되였다.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구호를 높이 들고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자강력을 증대시키며 생산적앙양과 비약을 일으킬데 대한 과업과 방도를 제시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기적적성과를 달성케 한 결정적요인으로 되였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서 주체화대상공사가 결속되여 100% 자체의 기술과 연료, 원료에 의한 주체철생산공정이 확립되였으며 자립적금속공업발전의 튼튼한 토대가 닦아지였다. 동해지구 석전만의 날바다를 횡단하는 교암—답촌철길이 완공되였다. 기계제작공업부문에서는 개발창조형 자동차, 뜨락또르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였다. 신발, 가방, 식료, 화장품 등 경공업부문에서는 인민들의 기호와 수요에 맞는 질높은 제품생산이 확대되였다. 양어, 축산, 수산, 과수업에서도 인민생활향상을 도모하는 좋은 결실을 거두었다.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전략적로선관철의 동음이 기운차게 울리게 된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지도의 결과이다.

그이께서는 온 한해 날과 달을 이어 신의주화장품공장, 원산구두공장, 삼천메기공장, 청진조선소, 신의주방직공장, 평양제약공장, 금산포젓갈가공공장, 묘향산의료기구공장을 비롯한 수많은 단위들을 현지지도하시며 온 나라에 생산정상화와 증산돌격, 새로운 비약과 창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하시였다.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는 공장의 생산공정을 새 세기 산업발전에서 주되는 목표로 되고있는 로력절약형, 기술집약형구조로 전환하고 첨단기술을 도입하여 생산과 생산지휘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해나감으로써 생산과 경영활동에서 최대한의 실리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공장을 현 시대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으로 개건하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지방경제발전과 군내인민들의 생활향상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삼지연군, 경성군, 신도군, 양덕군의 여러 단위들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지방의 자연지리적특성에 맞게 군내자원과 경제적잠재력을 옳게 리용하여 지방경제를 특색있게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높여 나라의 전면적부흥을 이룩하는데서 군이 역할을 다하도록 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송도원종합식료공장, 삼지연감자가루생산공장, 금산포젓갈가공공장을 비롯한 생산기지들에서 증산의 동음을 높이 울리고 기계제작부문에서 새형의 무궤도전차와 궤도전차를 제작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게 된것은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생산과 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키도록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올해의 귀중한 성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시하신 새로운 전략적로선이 그 어떤 고난이나 시련, 력사의 돌풍속에서도 기적을 창조하며 강국건설위업을 힘차게 다그칠수 있게 하는 가장 과학적이고 정당한 전략적로선이라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민족적화해와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펼치시여

올해는 북과 남이 민족의 중대사를 앞에 놓고 서로의 뜻과 마음을 합치며 발걸음을 함께 한 의의깊은 해이다.

북남관계를 개선하는것이 절박한 시대적요구로 나서고있는 정세변화와 평화와 통일번영에 대한 민족의 념원과 지향을 헤아리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대전환방침을 제시하시였다.

동결상태에 있는 북남관계를 개선하여 올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되게 할 확고한 결심을 지니신 그이의 통이 큰 구상과 의지 그리고 대범한 결단과 주동적이고 실천적인 조치들에 의하여 삼천리강토에 봄날의 눈석이가 시작되게 되였다.

북과 남이 참가한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가 평화와 화해의 올림픽으로 되여 온 겨레와 세인의 기쁨과 환희를 자아냈고 평양과 서울에서 노래무대를 펼친 북남예술인들의 공연은 온 민족의 화해와 단합열기를 더욱 강렬하게 하였다.

국사로 다망하신 속에서도 평양을 방문한 남측예술단의 공연을 보아주시고 출연자들을 만나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남측예술단의 평양공연은 《봄이 온다》는 제명과 더불어 북과 남의 온 민족에게 평화의 봄을 불러왔다고 하시며 이런 좋은 분위기를 소중히 지켜가고 계속 키워나갈 때 우리 겨레의 앞길에는 언제나 새싹이 움트고 꽃이 피는 화창한 봄과 오곡백과 무르익는 풍요한 가을만이 있게 될것이라고 하시였다.

따뜻한 봄을 소중히 가꾸어 풍성한 가을을 마련하는것은 우리 민족의 마음과 손에 달려있는것이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북남관계를 활력있게 전진시키고 조국통일의 새 력사를 써나가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렬한 민족애와 확고한 의지, 통이 큰 결단과 포옹력에 의하여 력사적인 판문점수뇌상봉과 회담이 이루어지고 판문점선언이 탄생하였다.

삼천리강토와 세계를 진감시킨 판문점에서의 북남수뇌상봉은 민족적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전환적국면을 열어놓은 획기적인 계기로 되였다.

뜻깊은 수뇌회담에서 남조선대통령은 오늘과 같은 뜻깊은 만남을 이루어낸 김정은국무위원장의 큰 용단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하였다.

북남관계의 새 출발과 화해단합의 새시대를 열어놓은 판문점선언리행을 위하여 크나큰 심혈을 기울여오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또다시 판문점에서 두번째로 되는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을 마련하시여 온 민족에게 새로운 희망과 활력을 안겨주시였다.

북남관계발전의 새시대를 열어놓으시고 평화의 봄을 풍요한 가을로 무르익혀가시는 그이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평양에서 북남수뇌상봉이 또다시 진행되고 력사적인 《9월평양공동선언》이 채택되게 되였다.

북과 남이 손잡고 함께 가는 새로운 려정에서 고위급인사들의 래왕과 접촉, 경제와 문화예술, 체육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과 교류가 이루어지고 군사적긴장완화와 평화보장을 위한 조치들도 실행되게 되였다.

2018년 《국내10대뉴스》를 선정한 남조선의 《련합뉴스》는 첫번째로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성과를 꼽으며 지난해말까지 악화일로를 걷던 《한》반도정세는 급전환했다, 북미간갈등으로 군사적행동, 전쟁이 거론될만큼 긴장이 고조되던 강토에 펼쳐진 극적인 평화드라마는 세계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다고 하면서 판문점, 평양, 백두산을 오가는 세차례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으로 가는 력사의 수레바퀴를 돌렸다고 전하였다.

온 민족이 실감한 꿈만 같은 올해의 사변들은 새로운 평화의 궤도, 화해협력의 궤도에 들어선 북남관계를 탈선없이 곧바로, 줄기차게 이어가도록 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로고와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마련된 소중한 결실이다.

조미사이의 오랜 적대관계를 끝장내고 두 나라 인민의 리익과 평화와 안전을 위한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한 결단과 의지에 의하여 올해에 싱가포르에서 력사상 처음으로 되는 조미수뇌상봉과 회담도 이루어지게 되였다.

온 겨레와 전세계의 비상한 관심과 기대속에 진행된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은 조선반도와 지역에 도래하고있는 화해와 평화, 안정과 번영을 위한 력사적흐름을 보다 추동하고 조미관계를 시대발전의 요구에 맞게 획기적으로 개선해나가는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사변으로 되였다.

《력사에 새 장이 열리였다.》, 《력사적인 조미회담, 싱가포르에서 악수》, 《조미 세기의 대화》, 《조미관계의 새 장》, 《력사적 순간》…

세계를 격동케 한 싱가포르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을 놓고 대서특필한 CNN방송, BBC방송, NHK방송, 《뉴욕타임스》, 《워싱톤 포스트》를 비롯한 세계언론계의 반향이다.

장구한 세월 대결과 불신, 증오의 악순환속에 살아온 두 나라가 관계개선에로 나아가는 새 력사의 탄생은 출중한 정치실력과 외교지략, 정력적인 대외활동으로 국가의 위상을 누리에 빛내이시고 세계정치정세흐름을 주도하여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비범한 령도력이 안아온 세기적 사변이다.

참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은 나라와 민족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헌신으로 강성번영의 찬란한 미래를 열어나가시는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비범한 정치실력과 외교지략으로 나라의 권위와 존엄을 빛내이시고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시는 탁월한 령도의 거장이시다.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여 인민이 존엄높고 나라가 강하며 민족의 미래가 밝다는것이 2018년의 령마루에서 떠올리는 추억이다.

본사기자 리 설

북남선언리행에 민족의 밝은 미래가 있다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의 채택으로 올해 북남관계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섰다.

올해에 들어와 진행된 세 차례의 북남수뇌상봉과 회담,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의 채택으로 우리 민족의 앞길에는 북남관계개선과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로운 리정표가 마련되였다. 특히 력사적인 9월 평양상봉과 회담이후 북과 남은 함께 손잡고 마련한 귀중한 성과들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북남관계를 새로운 평화의 궤도, 화해협력의 궤도우에 확고히 올려세우고 통일대업의 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해 더욱 분발하고있다.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리행하기 위한 장령급군사회담, 적십자회담, 철도협력분과회담, 도로협력분과회담, 산림협력분과회담, 체육분과회담, 보건의료분과회담을 비롯하여 다방면적인 접촉과 래왕, 대화와 협력사업들이 련이어 진행되여 온 겨레에게 민족의 밝은 래일과 평화번영에 대한 희망과 락관을 안겨주고있다.

불신과 대결로 얼어붙었던 이 땅에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훈풍이 불고있는 지금의 정세흐름에 대해 온 겨레가 기뻐하고있으며 국제사회도 지지와 환영을 보내고있다.

이 모든것은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에 대한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과 북남공동의 성실한 노력이 안아온 결실이다.

지난해말까지만 하여도 적대와 대결에로 치닫던 북남관계가 올해에 들어와 획기적전환의 길에 들어서고 그 과정에 이룩된 경이적인 성과들은 우리 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면 그 어떤 시련과 난관이 가로놓여도 두렵지 않으며 북남관계개선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능히 풀어나갈수 있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북남관계를 겨레의 지향과 시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키면서 평화와 번영, 통일의 넓은 길을 열어나가자면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에 밝혀진대로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민족자주의 원칙을 견지하는것은 우리 민족의 운명, 북남관계의 전도와 관련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외세에 의하여 북과 남으로 갈라진 우리 민족이 장장 70여년동안이나 분렬의 고통을 겪고있는것은 참으로 가슴아픈 일이다.

북남관계는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내부문제이며 북과 남이 주인이 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다. 그러므로 북남사이에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의 원칙,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풀어나가려는 확고한 립장과 관점을 가져야 한다.

북남관계개선은 그 누구의 승인을 받고 하는것이 아니며 누구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것도 아니다.

그 누구도 우리 민족에게 북남관계개선과 통일을 가져다주지 않으며 또 가져다줄수도 없다. 이것은 지나온 북남관계사가 보여주는 심각한 교훈이다. 현실은 북과 남이 민족문제해결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뜻과 힘을 합쳐나갈것을 더욱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남김없이 과시된 민족자주의 기치를 더 높이 들고 나아갈 때 우리 민족의 앞길에는 평화와 통일의 더 넓은 길이 열리게 될것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민족자주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 북남관계와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며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더욱 과감히 열어나가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김 영 진

화해와 단합을 추동하는 노래

《통일아리랑》

외세에 의하여 민족분렬의 비극이 강요된 때로부터 수많은 통일의 노래들이 겨레의 가슴을 울리며 북남삼천리에 메아리쳐왔다.

노래는 투쟁과 생활의 활력소이며 노래소리 높은 곳에 자주위업의 승리가 있다는것은 력사에 의해 검증된 진리이다. 분렬의 장벽을 날려버리고 이 땅우에 평화번영하는 통일조국을 일떠세울 일념을 안고 통일의 노래로 년대와 년대를 이어온 우리 겨레이다. 자나깨나 하나가 된 민족의 래일만을 생각하게 하는 통일가요들중에는 《통일아리랑》(작사 박두천, 작곡 김운룡)도 있다.

1998년에 창작된 이 노래에는 분렬로 인해 당하는 고통을 끌장내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기어이 이루고야말 우리 겨레모두의 절절한 념원과 의지가 담겨있다. 분렬의 비극을 강요당한 때로부터 오늘까지 장장 70여년, 그 기나긴 나날 우리 겨레는 가정에 경사가 나도 헤여져 사는 혈육들 생각에 아픈 가슴을 움켜쥐고 눈물을 흘렸고 꿈에도 바라는 통일의 소원노래에 담아 불렀다.

헤여져 얼마냐 아리랑 아리랑
반세기 아픔이 가슴친다 가슴친다
…

창문을 두드리는 한줄기 비바람소리에도 소스라쳐 일어나고 한번 잠을 깨면 다시 잠들지 못하며 혈육을 생각하는 애타는 마음, 이제는 모습마저 희미해져가는 갈라진 부모처자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속에 갈마드는 민족적설음, 이것이 바로 분렬의 비극속에 사는 우리 겨레가 매일, 매시각 느껴온 감정이다.

이 비극, 이 고통이 너무도 쓰라린것이여서 림진강의 맑은 물도 원한싣고 흐르고 저 하늘의 뭇새들도 슬피 울며 날아예는것인가.

이대론 못참아 아리랑 아리랑
장벽을 부시고 하나되자 하나
되자
…

들으면 들을수록 온 겨레의 심장에서 높뛰는 통일애국의 힘찬 박동소리가 가슴벅차게 울려온다.

하기에 이 강산에 울려퍼지는 《통일아리랑》의 메아리속에 자주통일대오는 민족자주의 기치높이 외세의 횡포한 도전을 쳐갈기며 노도와 같이 전진해왔다.

10여년전, 북남이 화해와 협력의 새시대를 펼쳐가던 때에 이 노래는 평양과 서울, 금강산을 비롯한 북과 남의 곳곳에서 힘차게 울려퍼졌었다. 북과 남이 함께 어울린 통일행사장들에서 참가자들은 《통일아리랑》을 비롯한 화해와 단합, 통일의 노래들을 흥겹게 부르며 우리 민족끼리 기어이 통일을 이루고야말 결의를 굳게 다지였다.

평양에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이 진행되고있을 때의 일이다. 당시 많은 남녘의 동포들이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을 보기 위해 평양을 찾았다. 그들은 《통일아리랑》장면에서 받은 격정과 환희를 저저마다 토로하였었다. 한 남조선동포는 《정말 감동이 컸습니다. 지난날 눈물의 〈아리랑〉을 부르며 흘어져갔던 우리 동포들이 〈통일아리랑〉을 부르며 금시라도 하나가 되는것만 같아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함께 부르는 노래마다 한겨레, 한피줄의 온기가 그대로 느껴지고 이것이 바로 통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라고 격정을 터치였다.

통일노래들을 부르며 힘차게 전진해온 겨레의 조국통일운동은 오늘 새로운 전환의 국면을 맞고있다.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의 발표와 더불어 이 땅에는 민족적화해와 단합, 평화번영의 새시대가 펼쳐지고있다.

열렬한 민족애와 통일의지를 지니신 절세위인께서 안아오신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을 받들고 우리 겨레모두는 밝아올 통일번영의 아침을 그려보며 확신에 넘쳐 통일주제의 가요들을 더 높이 부르면서 거족적인 통일대진군의 발걸음을 드높이고있다.

온 겨레 손을 잡고 아리랑
아리랑
자주의 새날을 앞당기자 앞당
기자
아리랑 아리랑 통일의 아리랑
삼천리 내 나라 삼천리 내
나라
통일아리랑

노래가사에도 있는것처럼 오늘 북과 남은 화해와 단합의 길우에서 손을 굳게 잡았다.

판문점과 평양과 더불어 민족의 성산 백두산마루에서 북과 남의 수뇌분들이 손을 굳게 잡으시고 삼천리강토를 굽어보시는 위대한 력사의 화폭에서 온 겨레는 밝아오는 통일조국의 아침을 그려보았다.

우리 겨레모두가 서로서로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간다면 꿈으로만 그려보던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번영과 자주통일이 현실로 성큼성큼 다가오게 될것이다.

《통일아리랑》을 비롯한 통일가요들의 선률이 울려퍼지고있는 속에 북남관계에서는 진전이 이룩되고있다.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철저히 리행하기 위하여 북남사이에 정치, 문화, 체육, 군사 등 여러 분야에서 대화와 접촉, 교류가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올해에 진행된 국제경기들에 북과 남의 선수들이 통일기를 앞세우고 함께 입장하고 여러 체육종목들에서 무어진 북남단일팀이 하나로 합쳐진 민족의 기상을 내외에 과시하였다.

군사적적대관계종식을 조선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해소로 이어나가기 위한 사업도 진행되고있다.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의 길에서 온 겨레가 희망과 신심에 넘쳐 함께 부르는 노래 《통일아리랑》!

진정 통일을 바라는 마음은 북과 남, 해외가 따로 없거니 하나의 마음, 간절한 통일념원 끓어넘치는 8천만의 심장에서 울리는 《통일아리랑》은 력사의 모진 풍파속에서도 삼천리를 진감하며 평화번영과 자주통일의 새아침을 불러오고있다.

본사기자 리 철 민

북남체육분과회담 진행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리행을 위한 북남체육분과회담이 14일 북남공동련락사무소에서 진행되였다.

회담에는 원길우 체육성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북측대표단과 로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남측대표단이 참가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2020년 여름철올림픽경기대회 공동진출과 2032년 여름철올림픽경기대회 북남공동개최유치를 비롯하여 체육분야에서의 협력교류를 위한 실무적문제들을 협의하고 공동보도문을 채택하였다.

본사기자

민족을 등진 대결광신자들에게는 앞날이 없다

지나온 2018년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북남관계개선에서 놀라운 전변이 이룩된 해였다. 한해동안에 무려 세차례에 걸치는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이 진행되고 여기에서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이 채택발표되여 우리 겨레는 통일의 앞길을 휘황히 밝히는 민족공동의 통일대강, 통일의 리정표를 받아안게 되였다.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의 기치높이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평화번영과 자주통일의 한길로 힘차게 전진하였다.

그러나 지난 한해동안 시대의 이 거세찬 흐름에 역행하여 사대매국과 반통일대결의 길로 줄달음쳐온 민족반역의 무리가 아직도 존재하고있으니 다름아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남조선의 극우보수패거리들이다.

지난 한해동안 민족화합과 북남관계개선,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의 리행을 어떻게 하나 가로막아보려고 피눈이 되여 날뛰여온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극우보수패당의 망동은 온 민족의 격분을 자아내였다.

북남합의들에 대한 악랄한 도전

남조선의 보수패당이 저지른 가장 큰 죄악은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들과 여기에서 채택된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부정하고 악랄하게 헐뜯은것이다.

올해에 들어와 북남관계와 조선반도를 둘러싼 정세에서는 극적인 변화들이 펼쳐졌다. 특히 지난 4월 27일 판문점에서 북남수뇌상봉이 이루어지고 판문점선언이 채택된것은 온 겨레와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지찬동을 받았다. 그런데 유독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남조선의 보수패거리들은 당치않은 궤변과 온당치 못한 소리를 마구 줴치는 추태를 부리였다. 홍준표를 우두머리로 한 극우보수패거리들은 북남수뇌상봉과 판문점선언에 대해 갖은 모독을 다 해대고 지어 《위장평화쇼》, 《북의 속임수》라는 수작질까지 해댔다. 이자들의 머리속에 얼마나 동족대결의식이 꽉 차있는가 하는것은 남조선 《국회》에서의 판문점선언지지결의안채택을 한해가 다 지나가는 오늘까지 끌끌내 거부하고있는 한가지 사실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

민심을 거스르면 천벌을 받기 마련이다. 지난 6월 남조선에서 진행된 지방자치제선거에서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은 민족화합과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아온 죄악으로 하여 참패를 당하였다. 그러나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은 여기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거꾸로 동족대결의 길로 더욱 줄달음쳐왔다.

지난 9월 평양에서 력사적인 제5차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이 진행되고 《9월평양공동선언》이 채택발표되자 온 겨레와 국제사회는 열렬한 지지를 보내였다. 그후 북과 남사이에는 《9월평양공동선언》리행을 위한 다방면적인 접촉과 협력사업이 진행되여오고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은 북남관계개선의 흐름을 외면하면서 《속빈 강정 평양선언》, 《무장해제 군사합의》, 《남북관계 퍼주기만》 등 차마 입에 담기조차 저속한 악담을 늘어놓으며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과 《9월평양공동선언》의 의의를 깎아내리려고 혈안이 되여 날뛰였다.

여론조사결과가 보여주듯이 온 남녘겨레가 북남수뇌상봉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지지찬동하고있는데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패거리들만 그것을 부정해나서고있으니 동족대결에 환장이 된자들의 눈뜨고 보지 못할 대결추태라 하지 않을수 없다.

화해와 단합, 평화번영의 훼방군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패거리들은 올해 북남사이에 대화와 접촉, 협력과 교류사업이 진행될 때마다 사사건건 물고늘어지며 방해해왔다. 못된 버러지 장판바닥에서도 모로 긴다고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은 고전소설 《흥부전》에서 나오는 놀부의 심보를 찜쪄먹을 행태만 부려 만사람의 저주와 규탄을 받았다.

지난 2월 공화국의 대범한 아량과 성의있고 적극적인 노력에 의하여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에 공화국의 고위급대표단과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이 참가하여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분위기가 한껏 고조되였다.

허나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은 이 경이적인 사변에 대하여 민족의 한 성원으로서 축하해주지는 못할망정 《평창올림픽이 아니라 평양올림픽이다.》라고 심술사나운 망발을 늘어놓았으며 지어 한 극우대결분자는 올림픽조직위원회 위원이라는 간판을 내세워 녀자빙상호케이종목에 출전한 북남단일팀이 《올림픽현장에 위반된다.》, 《용납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편지를 국제올림픽위원회에 보내는 망동까지 저질러 만사람의 분노를 자아냈다.

또한 《자유한국당》떨거지들은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폐막식에 참가하기 위해 내려오는 공화국의 고위급대표단을 《육탄》으로 저지한다고 하면서 도로상에서 《점거롱성》을 벌리는 꼴사나운 추태까지 부리였다. 이자들이 《점거롱성》을 끌내고 돌아간 자리에 쓰레기만 가득 남아있었는데 남조선인민들은 이를 두고 《왜 친구들은 두고갔냐.》, 《자유한국당=쓰레기》라고 조롱하였다고 한다.

북남사이에 여러 갈래의 대화와 접촉, 래왕이 진행될 때마다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은 《대북제재위반》에 대해 떠들며 어떻게 하나 북남교류협력사업을 가로막아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특히 이자들은 조선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 북과 남이 군사분야에서 진행하고있는 여러가지 사업에 대해 헐뜯으면서 각방으로 방해하고있다. 9월의 평양수뇌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리행합의서》에 대해 《위헌》이라고 걸고드는가 하면 《NLL을 포기했다.》, 《안보위협이다.》고 쉴새없이 고아대는것이 바로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이다.

지금도 《자유한국당》떨거지들은 틈만 나면 개선의 길로 나아가는 북남관계에 제동을 걸기 위해 별의별 억지와 생떼를 써가며 꼴사납게 놀고있다.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이 이처럼 온 겨레의 념원과 요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극악한 반통일망동을 서슴지 않고있는 목적은 딴데 있지 않다. 승냥이가 풀을 먹고 살수 없는것처럼 사대매국과 동족대결, 전쟁책동과 같은 《유전자》를 골수에 박아넣은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은 달리는 살아날 길이 없다는 인간추물들이다. 이자들은 지금 과거의 대결시대를 어떻게 하나 되살려 사대매국과 민족분렬책동으로 연명해온 자기들의 더러운 목숨을 부지해보려고 입에 게거품을 물고 날뛰고있는것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이 제아무리 발악해도 저승의 문턱에 들어선 저들의 운명을 바꿀수는 없는 법이다.

지금 남조선의 각계각층은 《〈자유한국당〉이 판문점선언의 〈국회〉통과를 리유없이 방해한것도 모자라 〈9월평양공동선언〉을 반대해나선것은 스스로 〈한〉반도평화와 남북관계발전을 원치 않는 세력임을 립증한것이다.》, 《평화와 남북관계발전을 한갖 정쟁거리로 만들려는 〈자유한국당〉의 망동은 당장 중지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자유한국당》당사앞에서 벌어진 시위들에서 참가자들은 《〈자유한국당〉 이제 쓰레기통으로》, 《경고장》, 《분단세력 라경원》, 《평화 발목잡는 김성태》라고 씌여진 표어들을 들고 반역당패거리들을 쓰레기통에 처넣는 상징의식을 벌리면서 투쟁분위기를 고조시키고있다.

민심을 거역하고 시대의 흐름에 도전하는 력사의 퇴물들이 서있을 자리가 이 땅에는 없다. 남조선의 보수패거리들이 아무리 발악해도 평화번영과 통일에로 나아가는 민족사의 거세찬 흐름을 막을수도, 되돌려세울수도 없다.

본사기자 김 철 민

《자유한국당》은 하루빨리 해체되여야 할 망동집단

남조선신문이 비난

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족일보》가 《〈자유한국당〉은 하루빨리 해체되여야 할 망동집단》이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신문은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성태가 임기의 마지막 순간까지 막말로 정치를 어지럽혔다고 비난하였다.

김성태가 지난 시기 《들개처럼 문재인 〈정권〉과 맞서 싸우겠다.》고 하면서 《정부》가 하는 일을 무작정 헐뜯더니 지금에 와서는 《〈정부〉가 민주로총에 꼬리를 내렸다.》는 망언을 늘어놓았다고 신문은 단죄하였다.

신문은 리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김성태의 막말이 민중에 대한 악랄한 도전임을 알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전 《정권》시기 특대형부정부패행위들에 공모하고 최순실과 같은자들과 결탁하여 세금을 탕진한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이 민중의 복지를 한사코 가로막으면서 로동자들을 렬악한 환경에로 내몰려고 한다고 신문은 까밝혔다.

신문은 더욱 심각한것은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평화번영, 통일의 성과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것이라고 하면서 김성태가 《9월평양공동선언》에 대해 《무장해제당했다.》, 《몹쓸짓이다.》고 악에 받친 헛소리를 해대고있다고 규탄하였다.

1야당원내대표직을 차지하고 남북협력을 사사건건 방해한것도 모자라 임기를 마치는 순간까지 반공화국모략에 열을 올리며 비난한것은 용납 못할 망동이라고 하면서 신문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주객이 전도된 막말로 정치를 어지럽히는 《자유한국당》은 하루빨리 해체되여야 할 망동집단이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원내대표가 바뀌여도 《자유한국당》은 김성태와 같은 들개습성이 체질화된자들이 모인 집단이기에 민중을 롱락하는 망동을 계속할것이다.

민중은 이미 《자유한국당》을 악폐집단으로 락인하고 심판의 날만 벼르고있다.

《자유한국당》이 계속 민심에 도전한다면 파멸적인 종말이 앞당겨지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비렬한 《인권》 모략소동은 용납될수 없다

지난 17일 유엔총회 본회의에서는 미국주도하에 《북조선인권결의안》이라는것이 조작되였다.

《결의안》에는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 《즉각적인 중단》, 《책임규명》과 같은 공화국을 악랄하게 헐뜯는 모략날조자료들이 렬거되여있다고 한다.

이보다 앞서 11일에는 미국무성이 나서서 공화국을 《종교자유특별우려국》으로 재지명하는 성명이라는것을 발표하면서 《올해 북조선에 종교자유와 인권이 개선됐다는 징후가 없다.》, 《종교자유와 인권개선을 위해 북을 지속적으로 압박하여야 한다.》는 악담을 늘어놓았다.

이러한 모략소동들은 존엄높은 공화국에 대한 엄중한 정치적도발이며 날로 높아가는 공화국의 국제적영상에 먹칠해보려는 비렬한 책동으로서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세계가 공인하는것처럼 최악의 인권유린범죄국으로 국제적인 심판대에 올라서야 할 주범은 바로 미국이다. 오늘 수리아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미국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에서는 피비린내나는 살륙만행들이 벌어지고있으며 미국내에서도 하루가 멀다하게 발생하는 총격사건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무참히 목숨을 빼앗기고있다. 얼마전 미국의 질병통제쎈터가 발표한데 의하면 미국에서 2017년 한해동안에 총기류로 발생한 사망자가 무려 3만 9 700여명에 달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매일 109명이 총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는것을 말해준다.

이런 최악의 인권유린국이 주제넘게 《국제인권재판관》, 《국제종교재판관》행세를 하며 남에 대해 시비질하고있는것이야말로 역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

인민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이 되고 정치가 인민을 위한 사랑과 믿음의 정치로 되고있는 공화국에서 《인권문제》란 애당초 생겨날수도 없는것이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있지도 않는 《인권문제》를 떠들어대는것은 공화국에 대한 제재압박의 폭을 넓히고 도수를 더욱 높여보려는데 불순한 목적이 있다.

미국의 꼭두각시가 되여 다른 나라들의 자주권과 존엄을 마구 유린하는 유엔에도 문제가 있다. 유엔이 세계의 평화와 안전, 인류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할 자기의 사명과 본분을 쥐버리고 미국의 강권과 전횡의 도구가 되여 참다운 인민의 나라를 중상모독하고있는것은 이 행성의 비극이고 인류의 수치가 아닐수 없다.

묵과할수 없는것은 남조선당국도 미국이 벌려놓는 반공화국 《인권》소동에 계속 맞장구를 치고있는것이다.

미국의 《인권》모략소동에 편승하는것은 현 북남관계개선분위기를 해치고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대결망동을 부추기는 푼수없는 추태이다.

존엄높은 공화국에 대한 비렬한 모략소동과 도발적이며 악의적행위들은 반드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라는것을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김 창 운

까마귀 백번 분칠해도 백로 될수 없다

13일 남조선의 《자유한국당》이 《자유한국평화계획》이라는것을 당의 새로운 《대북정책》으로 들고나왔다. 새로운 《대북정책》이라는데서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은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이루어졌을 경우 종전선언과 평화선언을 추진》하겠다고 하였는가 하면 《튼튼한 안보와 병행된》 북남경제협력에 대해서도 떠들어댔다. 그러면서 이번 《대북정책》은 저들이 《〈한〉반도 평화에 대한 청사진을 갖춘 대안정당이라는것을 보여준것》, 《수정된 내용을 당헌, 당규에도 반영하겠다.》고 희떱게 놀아댔다. 《자유한국당》것들이 이러한 놀음을 벌린 목적은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으로 마련된 북남화해국면과 남조선민심변화에 계속 역행하면서 수구랭전적인 《대북정책》을 고수하다가는 더욱 고립배척당하게 된다는것이 불보듯 명백해진데로부터 그것을 일부 완화시키거나 바꾸는 흉내를 내여 민심을 끌어당겨보려는데 있다.

참으로 소가 웃다 꾸레미 터질 일이 아닐수 없다.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이 들고나온 일명 《자유한국평화계획》이라고 하는 이 《대북정책》은 3대목표와 3대원칙, 7대기조와 중점추진과제로 되여있는데 주목되는것은 지난 시기 입밖에 낸적도 없는 《비핵평화》니, 《경제협력》이니, 《공동번영》이니 하는 말들을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처음 쓴것이다.

그러나 쥐여짜보면 동족대결과 《흡수통일》의 야망을 비단보자기로 감싼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 무슨 《자유한국평화계획》실현의 전제조건으로 《북의 완전한 비핵화》를 내들고 북남관계를 핵문제와 억지로 련결시킨것만 보아도 이 《대북정책》이라는것이 과거 리명박, 박근혜보수역적패당이 북남관계를 깨깨 망쳐놓기 위해 내들었던 동족대결정책인 《비핵, 개방, 3 000》이나 《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 복사판이라는것을 어렵지 않게 알수 있다.

핵문제를 구실로 북남사이에 대결의 빗장을 더 깊숙이 지르고 《평화》의 달콤한 거짓말로 민심을 끌어당겨 파멸에로 내닫는 더러운 정치적잔명을 부지해보려는것이 바로 역적패당의 흉심이다.

하지만 까마귀 백번 분칠해도 백로가 될수 없듯이 보수역적패당이 제아무리 《평화》와 《공동번영》의 면사포를 뒤집어써도 《전쟁당》, 《대결당》, 《반통일당》으로서의 추악한 본색은 절대로 가리울수 없다.

온 겨레가 바라는 진정한 평화와 번영의 길은 북과 남이 합의하고 내외에 엄숙히 천명한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의 철저한 리행에 있다.

평화번영과 통일의 암적존재인 《자유한국당》은 요사스러운 말장난으로 민심을 우롱할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시대밖으로 사라져야 한다는것이 지금 남조선민심의 일치한 요구이다.

리 천 봉

남조선도서가 말하는 《보안법》 (1)

남조선에서 파쇼적이고 반통일적인 악법인 《보안법》이 조작된지 70년이 지나갔다.

이 나라 강토를 영원히 둘로 가르고 남조선을 반공파쇼지대로 만들기 위해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1948년에 고안해낸 《보안법》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전면부정하고 남조선인민들의 애국적통일운동을 악랄하게 가로막아온 반통일적파쇼악법이다.

《보안법》의 매 조항과 문구들에는 동족에 대한 《고무, 찬양, 동조》, 《리롭게 한자》 등의 적대적인 표현들로 꽉 들어차있고 《북에 리로운것은 남에 해롭다.》는 식의 피이한 론리를 세워 그런 《행위를 한자》는 모두 《처형대상》으로 규정해놓고있다. 또한 이 반통일파쇼악법을 휘둘러 남조선에서 조직되는 모든 진보적정당, 단체들에 《반국가단체》라는 올가미를 씌우고 그 활동을 《국가변란죄》에 걸어 탄압할수 있게 되여있다. 이 악법에 의하면 단순히 북에 대한 좋은 말을 하거나 공화국에서 발행되는 책, 신문, 잡지 등을 읽기만 해도, 민간인들이 평화통일운동을 해도 《국가보안법》에 위반되는것으로 되여있다.

《보안법》의 범죄적정체는 남조선에서 력대 파쇼대결분자들이 조작한 수많은 《간첩사건》들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나고있다.

《간첩사건》에 대해 남조선의 도서 《〈국가보안법〉연구》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있다.

《1989년 12월경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장기수가족협의회가 작성한 〈간첩사건조작증언자료집〉은 당시 복역중이던 수감자들가운데서 100여명이 〈조작간첩〉이라고 하였다.

〈간첩사건조작증언자료집〉에 따르면 〈조작간첩〉에 여러가지 경우가 있다. 우선 전쟁때 월북했거나 행방불명이 된 사람들의 가족이 간첩이라고 인정받는 류형이다. 전쟁때 행방불명되였거나 월북한 사람들의 가족은 항상 엄한 감시속에서 살고있다. 이들은 누가 북에서 내려와 접선이나 하고 가지 않을가 하고 고정간첩으로 몰릴 위험을 가지고 불안속에 살고있다.

재일동포들도 간첩사건에 걸려들 위험을 안고있다. 재일동포들은 직접, 혹은 간접으로 조총련과 접촉하지 않을수 없기때문에 간첩조작의 하나의 조건이 된다. 일본관련사건이라고 부르는 류형도 있는데 이것은 류학, 취업, 려행 등으로 일본에 갔다가 부득이하게 조총련사람들을 접촉하게 되고 그것이 빌미가 되여 간첩으로 몰리울수 있는 경우이다. 또한 민주화운동관련사건이란것도 있는데 외국으로 류학간 사람을 간첩으로 몰아서 이 사람과 관련된 민주화운동단체를 탄압하려는 류형이라고 할수 있다. 이러한 실례는 류학을 마치고 돌아온 학생들을 학생운동과 관계를 맺었다는 구실로 검거투옥한 구미류학생간첩단사건을 들수 있다. 이외에도 간첩사건의 류형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간첩사건은 〈정권〉 유지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였다.

대체로 간첩죄를 적용하면 장기형이 선고되기때문에 간첩사건을 조작하여 〈장기구금량심수〉로 만들었다. 〈장기구금량심수〉에 대한 고문과 가혹행위에 의한 협의사실의 조작을 밝히기란 사실상 어려운 일이라고 한다. 장기수의 경우에는 이미 기록이 없어졌거나 재심기간마저 경과해버렸기때문에 후날 조작여부자체가 일방적주장으로 그칠수밖에 없는 상태이기때문이다.

간첩사건은 독재 〈정권〉의 안정에 가장 긴요한 수단이였다.

간첩사건은 독재 〈정권〉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정권〉 안보를 위한 대국민선전용으로 조작한것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국가보안법〉 사건이 정치성을 띠게 되는 여러가지 경우를 볼수 있지만 특히 간첩사건은 일반주민에게 주는 심리적 효과가 크기때문에 중대한 정치적국면에서 발표되군 하였던것이다.》

남조선의 파쇼독재광들은 《간첩사건》을 《국가보안법》을 통하여 마음먹은대로 조작할수 있었다.

이에 대해 도서 《〈국가보안법〉연구》에는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호에서 국가기밀이라는것은 북에 대하여 비밀로 하는것이 〈대한민국〉의 리익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정보를 말한다고 보는것이 상당하다고 할것이요, 따라서 그것이 비록 일반통행인이 쉽게 외부에서 목견할수 있는 정보에 속한다고 하여도 그것이 우에서 말하는 〈국가〉 기밀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것이라고는 말할수 없다 할것이다고 규정되여있다. 이것은 사소한 생활상의 모든 지식과 정보가 간첩행위의 대상으로 될수 있다는것이다. 모든 일상적인 대화내용이 모두 〈국가〉 기밀루설로 되지 않을수 없다. 당국이 마음만 먹으면 간첩으로 만들기는 식은죽 먹기보다 쉬운것이다. 이상과 같은 허술한 법률조항과 이를 악용하고 용인해준 법적용기관의 관행에 의해 간첩은 무수히 량산되고 분단의 고통은 심화되여온것이다. 〈국가〉 기밀루설죄를 적용하는 과정도 인권을 고려함이 없이 완전한 무시의 태도를 취하고있다. 한마디로 간첩에 대한 인권보장의 모든 법적장치가 해제되여도 좋다는것이다. 이런 의식으로부터 간첩에 대해서는 고문을 비롯하여 불법수사가 허용되고 언론을 비롯한 그 어떤 사회여론으로부터의 비판과 제한을 받지 않으며 심지어 〈인권의 최후보루〉로 자처하는 사법부조차도 수사기관과 다름없는 시각을 가지고있다고 한다. 간첩은 바로 이와 같은 고립무원한 상황에서 만들어진다. 어떤 법률적조항도, 어떤 기관도, 어떤 사람도 이들 편에 서있지 않다. 이들은 절망속에서 간첩이 되여갔던것이다.》라고 씌여져있다.

남조선사람들도 말하고 책에서 주장하고있듯이 《국가보안법》이야말로 나라의 영구분렬과 북남간의 대결을 추구하며 파쇼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조작되고 리용되여온 악법중의 악법으로서 지체없이 폐기되여야 마땅하다.

오 영 철

아직도 대결의 칼을 가는가

남조선군부가 구태의연한 군사적대결관념을 버리지 않고있다.

얼마전에도 남조선군부는 륙군 제102기갑려단을 내몰아 전투준비태세완비를 위한 야외전술훈련이라는것을 벌려놓았다.

래년에는 전술지상대지상유도탄으로 무장할 한개 화력려단을 내오려고 분주탕을 피워대고있다. 지상작전사령부에 소속되는 화력려단의 기본임무는 유사시 《북의 장거리포》와 미싸일기지를 타격하는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조선반도에서 실질적인 전쟁위험제거와 군사적적대관계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북남군사분야합의서에 배치되고 조선반도긴장완화흐름에 역행하는 위험한 군사적움직임이다.

돌이켜보면 지난해 조선반도에서는 외세와 그에 야합한 남조선군부의 광란적인 반공화국군사적대결책동으로 전쟁위험이 최대로 고조되였다. 그러나 올해에는 공화국의 대범한 결단과 애국애족적인 조치로 하여 북남관계에서 획기적인 전환과 극적인 사변들이 일어나고 긴장완화와 평화의 분위기가 고조되였다.

이와 같은 뚜렷한 대조는 상대를 해치려는 군사적적대행위는 불피코 북남사이에 대결과 불신을 가져오고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격화시킨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남조선군부는 아직도 시대착오적인 대결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대화와 협력의 막뒤에서 동족을 해칠 적대의 칼을 계속 벼리고있다.

이달에 들어와서도 남조선군부는 《전군지휘관회의》와 년말 《작전지휘관회의》라는 군사적대결모의판을 련속 벌려놓고 《빈틈없는 대비태세》 유지와 미국과의 《련합작전능력향상》을 운운하며 대결분위기를 고취하였는가 하면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서 최신전쟁장비들을 끌어들이려고 획책하였다.

또한 훈련공백에 따른 《보완조치》라는 미명하에 저들 단독의 군사훈련을 벌려놓았다.

앞에서는 《평화》와 《긴장완화》를 떠들고 뒤돌아앉아서는 군사적대결을 모의하고 전쟁연습과 무력증강놀음에 매달리는것이야말로 도저히 용납할수 없는 이중적처사이다.

대화와 대결, 평화와 전쟁책동은 물과 기름처럼 어울릴수 없으며 겉과 속이 다르게 처신하면 진정한 화해와 북남관계발전을 이룰수 없다.

70여년동안 이어져온 불신과 적대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고 대결과 전쟁의 근원을 완전히 제거하는것은 우리 민족의 한결같은 지향과 의지이고 시대의 거스를수 없는 요구이다.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이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물론 국제사회의 열렬한 지지환영을 받고있는것은 조선반도평화와 안정에 대한 민족의 지향과 념원이 그대로 반영되여있기때문이다.

력사적인 북남선언들과는 어긋나게 군사적대결을 고집하며 여기에 계속 매달리는것은 화해와 단합,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온 민족을 실망케 하고 겨레의 소중한 념원을 욕되게 하는것으로 된다.

남조선군부는 시대와 민족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비정상적인 대결관념과 자세를 하루빨리 버려야 함이 마땅하다.

본사기자 주 광 일

정계가 아니라 력사의 심판대에 나서야 한다

최근 남조선에서 《자유한국당》의 친박근혜패거리들이 기승을 부리고있는것을 기회로 전 《국무총리》 황교안이 보수세력의 《중심》인물로 정계에 다시 나서보려고 교활하게 놀아대고있다.

이자는 현 집권자가 《북의 기만술에 넘어갔다》, 《〈정부〉의 경제정책은 멀쩡한 경제를 망치는 정책시험이다.》고 당국의 대내외 정책들을 로골적으로 비난하는가 하면 《보수의 응당한 역할》을 떠들어대며 경상북도, 경기도를 비롯한 여러 지역들에 대한 《현장방문》놀음을 벌리는 등 제 몸값을 올려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다.

특히 여러차례나 비공개토론회들을 벌려놓고 청년들의 허심탄회하고 꾸밈없는 모습에서 희망을 보았다며 노죽을 부리는가 하면 연세대학교에서 비공개특별간담회를 연다, 서울지역청년들과의 비공개면담을 한다 하면서 젊은 세대들을 끌어당겨보려고 모지름을 쓰고있다.

이것이 남조선에 조성된 현 정치적상황을 자기의 더러운 권력야욕실현에 써먹으려는 극악한 파쇼광, 정치간상배의 교활한 술수라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황교안은 박근혜의 특등심복으로서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의 감투를 쓰고 역도년의 손발노릇을 해온자이다.

박근혜가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은 때부터 법무부 장관자리를 차지한 황교안은 역도의 지시봉에 따라 움직이면서 역도년의 범죄행위를 덮어버리고 진보민주세력을 가차없이 탄압하며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막은 파쇼악당이다.

이자는 박근혜의 《대통령》당선을 조작하는데 한몫한 정보원선거개입사건을 어떻게 하나 무마시킬 심산밑에 검찰이 전 정보원 원장 원세훈을 《공직선거법》위반협의로 구속하는것을 강압적으로 보류시켰으며 정보원직원들에 대한 검찰수사도 극력 차단하였다. 한편 정보원선거개입사건조사를 주도하던 전 검찰총장 채동욱을 사생아문제로 자진사퇴하게 만들었다.

정윤회 《국정》개입사건을 비롯하여 박근혜에게 불리한 사건들을 모두 유야무야시킨 장본인도 다름아닌 당시 법무부 장관이였던 황교안이였다.

천하의 역적 박근혜의 범죄를 한사코 감싸준 황교안은 진보민주세력에게는 피묻은 이발을 드러내면서 《리석기내란음모사건》을 조작하여 통합진보당을 강제해산하는 파쇼적망동도 서슴지 않았다.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이라는것도 이자가 박근혜의 지령밑에 살벌한 폭압정국을 조성하고 심화되는 통치위기를 해소하려고 꾸며낸 파쇼모략극이다.

황교안이 법무부 장관자리에 틀고앉은 2013년 《보안법》위반으로 인한 구속기소건수가 그 전해에 비해 훨씬 늘어난 사실만으로도 극악한 파쇼광으로서의 이자의 기질을 잘 알수 있다.

박근혜의 파수군, 노복의 역할을 충실히 한것으로 하여 《국무총리》의 감투를 뒤집어쓴 이자는 박근혜 《정권》의 반공화국대결과 반인민적정책실현에 앞장섰다.

청와대악녀가 초불민심에 의해 청와대에서 쫓겨난 후에도 황교안은 《싸드》배치와 매국적인 일본과의 성노예문제 《합의》리행, 력사교과서 《국정화》강행놀음에 계속 매달리는가 하면 《세월》호참사당일 박근혜역도의 7시간행적이 담긴 자료들을 비롯한 수만건에 달하는 청와대문서들을 비공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여 보관고에 처넣는 등 역도의 범죄사실들을 덮어버리려고 교활하게 책동하였다.

황교안이야말로 박근혜의 특급졸개로서 마땅히 역도년과 함께 감옥신세를 지고있어야 할자이다.

이런자가 스스로 오라를 지고 죄를 청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감히 정계에 다시 나서려 하는것이야말로 초불민심에 대한 로골적인 모독이고 조롱이 아닐수 없다.

문제는 박근혜잔당들이 살기등등하여 대가리를 쳐들고있는것과 때를 같이하여 황교안이 부산스럽게 설쳐대고있는것이다.

박근혜의 수족이 되여 온갖 못된짓만 해온 황교안이 정치권에 재등장하여 보수야당의 수장자리를 타고앉으면 그것은 박근혜보수 《정권》의 전면복귀를 예고하는 전주곡으로 될것이다. 그리고 《싸드》를 끌어들인 주범이 정치권에 재등장하는 경우 주변국들의 반발로 남조선이 또 어떤 수모와 곤욕을 치르겠는가 하는것도 불보듯 명백하다.

박근혜의 특등졸개인 황교안은 정계에 낯짝을 들이밀것이 아니라 력사의 준엄한 심판대에 올라서야 한다.

김 현 일

설맞은 독사가 기승을 부린다

《정치철새》들의 서식지인 《자유한국당》이 시도때도 없이 벌리는 계파싸움으로 어느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다.

밥 한끼는 굶어도 계파싸움은 건느지 않는것이 바로 《자유한국당》이다.

얼마전에도 《자유한국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면서 또 한차례의 계파전쟁을 벌리였다.

이번 원내대표선출은 임기 1년을 마친 전 원내대표 김성태가 물러난데 따른것이지만 새 원내대표가 다음해 2월에 예정된 전당대회를 주관하는것으로 하여 친박계와 비박계사이의 치렬한 대결속에 진행되였다. 의원총회에서는 《박근혜석방》과 《보수대통합》을 전면에 내들고 《태극기부대》흡수, 《인적청산》반대, 《반문재인련대》를 내세워 친박계와 중립파의 지지를 받은 라경원이 비박계인 김학용을 누르고 새 원내대표로 당선되였으며 원내대표가 정책위원회 의장을 지명한다는 당내규정에 따라 친박계인 정용기가 정책위원회 의장으로 되였다.

이로써 《자유한국당》은 민심이 이미전에 예견한바 그대로 《도로친박당》이 되였다.

라경원의 새 원내대표선출은 그렇지 않아도 그칠새 없는 당내파벌싸움, 보수세력내부의 주도권싸움을 더욱 심화시키고있다.

《자유한국당》에서 한때 최대계파를 이루고있던 친박계가 박근혜탄핵이후 《당을 망친 장본인》, 《청산대상》으로 락인되여 분렬약화된데다가 당권을 차지했던 홍준표와 김무성과 같은 비박계에 밀리워 온갖 수모를 받아왔다는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이번에 라경원이 새 원내대표로 선출되면서 존폐위기에 몰려있던 친박계는 다시 머리를 쳐들고 세력규합에 나설수 있게 되였으며 원내대표경선에서 패한 비박계는 다음해 2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직을 차지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라붙으면서 계파간 개싸움이 더욱 치렬하게 벌어지게 되였다. 원내대표선거이후 비박계는 량다리치기를 하고있는 라경원이 정체성을 밝혀야 한다고 공격해나서면서 이번 원내대표선출경쟁에서는 패하였지만 앞으로 당대표직은 무조건 차지하겠다고 으르렁대고있다.

《자유한국당》에서 세력다툼은 《보수대통합》놀음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있다.

《자유한국당》의 비박계가 당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김병준, 전 원내대표 김성태를 전면에 내세워 《바른미래당》을 흡수하고 전 서울시장 오세훈을 다음기 《대통령》후보로 내세우는 등의 방식으로 《보수대통합》을 실현해보려고 획책하여왔다는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편 친박계는 내부분렬의 씨앗인 《바른미래당》과 오세훈은 안된다, 통합대상은 전 《국무총리》 황교안과 《태극기부대》라고 떠들면서 비박계주도의 《보수대통합》 움직임을 막아왔다.

이런 속에 친박계와 결탁한 라경원이 원내대표직을 차지함으로써 친박계가 득세하게 되였으며 이를 견제하기 위한 비박계의 움직임이 더욱 강화되면서 《보수대통합》을 둘러싼 각 파벌들간의 대결이 보다 심화되게 되였다. 벌써부터 라경원은 당이 《태극기부대》를 흡수하는것이 급선무라고 떠벌이면서 친박계에 합세해나서고있는 판이다.

지금 《자유한국당》의 친박계는 원내대표선출놀음에서 비박계를 이기자 기고만장하여 전 서울시장 오세훈을 비롯하여 비박계 후보인 물들을 흠집내여 끌어내리고 전 《국무총리》 황교안과 전 원내대표 정우택을 자파세력을 대표하는 후보로 내세워 당권을 장악해보려고 꾀하고있다. 한편으로는 얼마전 당비상대책위원회가 발표한 《인적쇄신안》을 두고 《특정계파를 노린 표적쇄신》, 《친박인사들을 찍어내려는 음모》라며 집단적으로 반발하다 못해 《할일없는 당비상대책위원회는 당장 짐을 싸들고 당에서 나가라.》고 악을 쓰면서 김병준을 비롯한 비상대책위원회를 당밖으로 쫓아내려 하고있다.

박근혜역도의 공범자무리, 추악한 범죄집단인 《자유한국당》의 친박계가 아직까지 존재하면서 날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것은 그자체가 비정상이고 경악할 일이다.

가관은 박근혜탄핵과 함께 된서리를 맞고 숨도 제대로 못쉬던 이 반역의 무리들이 다시 머리를 쳐들고 날치다 못해 당권을 장악하고 《정권》을 탈취할 기도까지 꺼리낌없이 드러내고있는것이다. 친박계의 기세가 어느 정도 푸르딩딩한지 전 《국무총리》 황교안과 전 원내대표 정우택 등 박근혜의 특급수하졸개들이 당권장악, 《대선》출마를 꿈꾸며 부산스레 설쳐대고있는 정도이다. 권력야욕달성을 위해 어제는 비박계의 앞장에 서서 《박근혜출당》을 피터지게 고아대다가 오늘은 친박계에 붙어서 《박근혜석방》을 운운하는 라경원같은 정치추물이 원내대표자리를 타고앉은것을 보면 《자유한국당》은 정치매춘부들의 집단임이 더욱더 명백해졌다.

권력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친박계가 래년에 있게 될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장악하게 되면 박근혜의 탄핵에 동참하였던 비박계를 모두 숙청해버리게 될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설맞은 독사가 더욱더 독기를 뿜는다고 했다. 거대한 초불투쟁의 광장에 섰던 남조선 각계는 박근혜에 대한 탄핵과 함께 철저히 매장해버려야 할 잔당들에게 숨통을 열 시간을 준것이 어떤 심각한 사태를 몰아오고있는가를 지금 느끼고있다.

본사기자 김 응 철

인민들에게 질좋은 상품을 더 많이

* 김미영 평양제1백화점 부지배인과 나눈 대담 *

얼마전 평양에서 제10차 평양제1백화점 상품전시회가 진행되였다. 이와 관련하여 기자는 김미영 평양제1백화점 부지배인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 자: 평양제1백화점 상품전시회가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인민사랑을 전하며 해마다 성황리에 진행되여오고있지 않는가.

김 미 영: 그렇다. 평양제1백화점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해마다 상품전시회를 진행하고있다. 여기에는 우리 인민들에게 질좋고 다양한 상품들을 더 많이 안겨주기 위해 온갖 심혈을 기울여오신 절세위인들의 한없이 뜨거운 사랑이 깃들어있다.

평양제1백화점은 우리 나라의 얼굴이고 경공업전시관이나 다름없다고, 상품만 보장하여주면 경공업전시관을 따로 꾸릴 필요가 없다고 하시며 해당 부문에서 조직사업을 잘하여 인민들이 요구하는대로 팔아줄수 있게 상품을 넉넉히 보장하도록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 제2차 평양제1백화점 상품전시회장을 찾으신 우리 장군님께서는 전시회를 위한 전시회가 되지 말아야 한다고, 내각을 비롯한 해당 부문들에서 이번 전시회에 내놓은 상품들보다 더 좋은 여러가지 상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정상적으로 팔아줄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평양제1백화점을 우리 나라 인민소비품전시장이 되게 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인민의 기쁨과 행복속에서 더없는 락을 찾으시는 절세위인들의 은정속에 우리 백화점에서는 해마다 상품전시회를 특색있게 진행하여 인민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기 자: 이번 상품전시회의 특징을 어떻게 볼수 있는가.

김 미 영: 경공업부문에서 경쟁열풍이 세차게 일어나 전시회에 참가한 단위들의 수에 있어서나 출품된 상품들의 가지수에서 볼 때 지난 시기보다 규모가 더 커진것이다.

이번 상품전시회에는 평양제1백화점에 상품을 보장하는 중앙 및 지방산업공장들과 상업봉사부문의 리용생산반을 비롯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550여개 단위들이 참가하였으며 1 800여종에 250만 7 000여점에 달하는 상품들이 출품되였다. 이것은 지난번 상품전시회에 비해 참가단위수가 근 2배로 늘어나고 백수십만점이나 더 많은 상품이 출품된것으로 된다.

특히 전시회참가를 희망하는 생산단위들이 전시회 기간에 자체로 판매를 진행하였는데 자기들이 만든 상품에 대한 인민들의 엄격한 심사를 받는 과정에 질을 더 높이기 위한 자극을 받고 경쟁열의를 더욱 불러일으키는 좋은 계기로 되였다.

전시회에 참가한 모든 단위들에서 자기들이 생산한 상품들의 우결함에 대해 더 잘 알고 수요도 제때에 장악할수 있었다고 하면서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상품, 자기 얼굴이 살아있는 명제품, 명상품들을 더 많이 생산할 결의를 다지였다.

전시회장을 찾아오는 사람들도 우리의 자원, 우리의 힘과 기술로 만든 상품들을 보니 자기의것에 대한 긍지가 생긴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였다.

기 자: 이번 상품전시회에서 어떤 방법으로 평가가 진행되였는지 알고싶다.

김 미 영: 사회주의상업의 본질은 철두철미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데 있다. 상품을 얼마나 확보하여 몇차례의 상품전시회를 진행하였는가 하는 수자가 아니라 우리 인민들이 실지로 덕을 볼수 있는 상품, 인민들이 즐겨 찾는 명제품, 명상품들을 얼마나 많이 보장하였는가 하는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이번 상품전시회에서는 철저히 인민들의 평가를 기준으로 하여 상품보장계획을 수행한 단위들중에서 상품의 질과 수요가 높은 제품들을 출품한 단위들에 최우수단위, 우수단위, 모범단위 증서와 순회우승기를 수여하고 품질이 우수한 상품들에 대해서는 2월2일제품으로 등록하였다.

우리는 앞으로 봉사활동을 짜고들어 인민들에게 질좋고 다양한 상품이 더 많이 차례지도록 하겠다.

늘어나는 명제품, 명상품들

《전시된 상품들이 하나같이 마음에 들어 어느것부터 사야 할지 모르겠다.》

《맛과 영양가에 있어서나, 상품포장에 이르기까지 훌륭하다. 세계시장에 내놓아도 흠잡을데 없는 명제품, 명상품들이다.》…

제10차 평양제1백화점 상품전시회장을 찾은 사람들마다 경탄을 금치 못해한것은 어느 전시대나 할것없이 명제품, 명상품들로 가득찬 풍경이였다.

전시대들을 꽉 채운 갖가지 상품들도 볼수록 흐뭇했지만 눈에 띄는 상품마다 마음에 꼭 들어 어느것부터 사야 할지 모를 정도였다.

각 생산단위에서 생산한 제품들에 대한 가장 공정한 평가는 인민들이 한다. 인민이 좋아하고 인민들속에서 수요가 높은 상품이 명제품, 명상품인것이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로 흥성이는 오일건강음료종합공장전시대부터 들렸다. 그곳에는 신젖, 딸기요구르트, 펩티드건강음료, 기능성에스키모, 대추우유, 커피우유, 에네르기활성음료를 비롯한 많은 건강음료들이 전시되여있었다. 알고보니 전시된 건강음료들의 대다수가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상품들이였다. 지난 시기에 진행된 평양제1백화점 상품전시회에서 여러차례나 우수한 단위로 평가된 관록있는 공장이 확실히 달랐다.

락연식료가공공장, 평양기초식품공장, 선흥식료공장, 대동강과일종합가공공장, 평양밀가루가공공장들에서 출품한 간장, 된장, 먹는기름을 비롯한 기초식품으로부터 당과류, 빵류, 청량음료, 절임장품공장에서도 인민이 즐겨찾는 질좋은 화장품들을 내놓았다. 얼굴을 밝게 하고 검버섯과 여드름을 없애며 로화를 방지하는 기능성화장품들이 종전보다 더 많이 전시되여 이곳을 찾는 녀성들 누구나 좋아했다.

이 공장들만이 아니였다. 원산구두공장에서 출품한 《매봉산》상표를 단 신발도 형태가 다양하고 무게가 가벼워 사람들이 저마다 고르고 신어보느라 여념이 없는가 하면 평성합성가죽공장과 희천경질그릇공장에서 내놓은 상품들도 모양이 독특하고 세련되여 참관자들로 붐비였다.

평양양말공장에서 출품한 갖가지 색갈의 나노은항균양말이 건강에 좋은 작용을 하는것으로 하여 호평을 받을 때 박천견직공장의 명판이 붙어있는 전시대에서도 명주천으로 만든 갖가지 색갈의 포근한 이불들이 전시대를 꽉 채워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

전시회장에서 우리와 만난 선교편직공장의 한 일군은 《우리 공장에서 이번 전시회에 질을 개선한 여러가지 편직물들을 내놓았는데 수요가 높았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기술경쟁, 새 제품개발경쟁을 힘있게 벌려 명제품, 명상품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겠다.》고 말하였다.

본사기자 홍범식

자력갱생의 소중한 열매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체로 살아나가려는 강한 정신력, 부닥치는 난관을 제힘으로 뚫고나가는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기풍은 무에서 유를 낳는 창조와 비약의 원동력이다.

제10차 평양제1백화점 상품전시회는 자력갱생을 전진방식, 창조방식으로 하루가 다르게 더 높이 비약해가는 공화국의 참모습을 보여준 또 하나의 계기로 되였다.

천수백여종의 질좋고 다양한 상품들이 가득찬 이번 상품전시회에서 참관자들의 호평을 받은것은 국내산 원료와 자재들을 리용하여 자체의 힘과 기술로 만든 상품들이였다.

《황금산》이라는 이름과 더불어 사람들속에 널리 알려진 창성식료공장에서는 이번 상품전시회에 창성지방에서 나는 갖가지 산열매들을 원료로 하여 특색있는 여러가지 상품들을 만들어 출품하였다. 찔광이, 돌배, 도토리, 오미자, 머루, 다래 등으로 만든 술과 단물, 단졸임 등 상품들은 자기 지방의 원료, 기술로 생산한 자연의 맛 그대로인 천연제품들로서 사람들속에서 수요가 높았다.

김일성종합대학 첨단과학연구원에서 내놓은 오리자놀화장품은 우리 선조들이 오랜 기간 전통적으로 진행하여 오던 쌀씻은 물에 의한 피부미용방법을 과학화한 천연기능성화장품이다.

오리자놀은 우리 민족이 주식으로 리용하는 쌀의 겉껍질부분 다시말하여 쌀겨에 들어있는 천연물질로서 독성이 없는것으로 하여 젊고 아름다워지기를 바라는 녀성들속에서 오리자놀화장품에 대한 인기는 대단했다.

참으로 상품전시회장을 가득 채운 상품들이야말로 자력갱생의 정신력으로 부닥치는 난관을 뚫고 더 좋은 래일을 마중해가는 공화국의 약동하는 기상을 보여준 흐뭇한 열매들이였다.

본사기자 김진혁

제힘으로 더 좋은 래일을

자력갱생으로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해가고있는 공화국에서 시대를 대표하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수많이 일떠서고있다.

명당자리에 훌륭하게 일떠선 전민학습의 대전당—과학기술전당,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미래과학자거리와 려명거리, 현대적으로 일떠선 공장들과 기업소들, 대규모양어장들 …

최근에만도 백두산아래 첫 동네인 삼지연군이 인민들의 리상향, 산간문화도시의 전형으로 몰라보게 전변되고있으며 동해의 명승지인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의 건설이 힘있게 다그쳐져 세계적인 해안관광도시로서의 모습을 점차 드러내고있다.

단천발전소건설장을 비롯하여 건설장들마다에서 비약과 혁신이 일어나고 공장, 기업소들에서 자력갱생의 기치밑에 생산정상화의 동음이 세차게 울리고있다.

공화국에서 이룩되고있는 자랑찬 성과들은 결코 조건이 좋아서 이루어진것이 아니다.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경제제재로 하여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렵다.

하지만 자력갱생의 정신과 과학기술의 힘으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자는것이 바로 엄혹한 시련을 헤치며 공화국 인민들의 마음속에 간직된 확고한 신념이고 의지이다.

날바다를 가로지르는 고암—답촌철길을 건설하여 건설력사에서 일찌기 없었던 경지를 개척한 건설자들의 투쟁을 놓고보아도 잘 알수 있다.

건설자들은 처음으로 가물막이를 하지 않고 바다에 콩크리트기초를 박아 해상철길다리를 건설하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불리한 자연지리적조건과 적대세력들의 극악한 제재와 압살책동으로 겹쳐드는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며 이들은 세계적으로 앞섰다고 하는 현대적인 공법들을 억대의 자금을 요구하는 대형설비가 아니라 자체의 설비와 장비로 해내였다.

이렇게 자기의 손으로 더 좋은 래일을 안아오겠다는 강한 민족자존의 정신, 모든것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자기식으로 만들어야 그것이 더욱 소중하고 빛이 난다는 철리를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주려는 불타는 애국충정과 견인불발의 의지를 지닌 공화국인민들은 모든 난관과 시련을 박차고 세인을 경탄시키는 기념비적 창조물들을 보란듯이 일떠세우고있다.

얼마전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을 또다시 찾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적대세력들이 우리 인민의 복리증진과 발전을 가로막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굴복시켜보려고 악랄한 제재책동에만 어리석게 광분하고있지만 시련속에서 자기의 힘을 백배로 비축한 우리 국가가 어떻게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손으로 강대한 나라를 꾸려나가는가를 시간의 흐름과 함께 뚜렷이 보게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보다 더 좋을 래일을 자기의 손으로 마련해가는 공화국인민들은 이 땅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을 기어이 일떠세우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김철

민족무용사에 뚜렷한 자욱을 새긴 최승희춤체

공화국의 품에 안겨 값높은 삶을 누려온 사람들속에는 조선무용가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였던 인민배우 최승희선생도 있다. 명성높은 무용가였던 최승희선생은 현대조선민족무용발전의 기초를 마련하고 세계에 우리 민족무용의 우수성을 널리 과시한것으로 하여 겨레의 추억속에 깊이 새겨져있다.

최근 공화국에서는 민족성이 뚜렷이 반영되여있는 최승희춤체를 적극 살려내여 보급하고있다. 얼마전 기자는 남수향 피바다가극단 조선무용연구소 연구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 자: 조선무용연구소에서 최승희춤체를 살려냈는데 일반적으로 춤체라는 표현을 어떻게 리해할수 있는가?

남 수 향: 춤은 팔과 다리, 몸을 률동적으로 움직여 예술적형상을 나타내는 예술이다. 문학작품에 글체가 있고 서예작품에 서체가 있듯이 무용작품에는 춤체가 있다.

춤체라고 할 때 춤형상수법의 고유한 틀이나 격식, 그 모양새와 방법을 말한다. 여러 사람이 같은 무용작품을 형상할 때 률동의 흐름새와 형상방법이 뚜렷이 구별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춤체가 서로 다르기때문이다.

남 수 향 연 구 사

민족이나 지역, 사람마다 춤의 표현방식이 다르게 나타난다. 매 민족, 매 지방, 매 사람들은 정서적미감과 생활양식의 차이로 하여 개성적인 특징들을 가지며 률동형상에 들어가서는 그 특징을 바탕으로 기본춤체를 이루게 된다.

유구한 전통을 자랑하는 민족무용의 춤체는 오랜 력사발전과정을 거쳐 형성발전되여왔다. 조선민족무용의 고유한 춤체도 이러한 력사적 전통을 가지고 계승발전되여왔다.

기 자: 최승희춤체의 특징을 어떻게 볼수 있는가?

남 수 향: 최승희춤체는 1930년대 중엽에 시대의 지향을 반영한 민족무용의 무대화가 실현되는 과정을 통하여 형성되였다. 무용의 무대화란 예술화된 무용작품들이 극장무대에 올라 관중들을 대상으로 하여 공연되는것을 말한다.

1920년대말까지만 해도 우리 민족무용은 무대화, 예술화의 단계에 도달하지 못하고있었다. 극장무대에 성악작품, 기악작품, 화술작품이 오르는 례는 있어도 무용작품이 오르는 일은 없었다.

최승희선생은 민간무용, 승무, 무당춤, 궁중무용, 기생무 등의 무용들을 깊이 파고들어 거기에서 민족적정서가 강하고 우아한 춤가락들을 하나하나 찾아냈으며 현대적미감에 맞는 새로운 무용작품들을 창작하여 공연하였다.

그가 창작공연한 무용작품들가운데는 《마을의 풍작》, 《아리랑》, 《초립동》, 《장고춤》, 《화랑의 춤》, 《선녀춤》, 《고구려의 전무》 등이 있다.

그의 공연을 본 많은 사람들이 《조선춤을 그대로 추는것이 아니라 옛날것을 새롭게 하고 약한것을 강하게 하면서 자기스스로 창작한 조선춤》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그가 민족무용의 우수성을 적극 살리면서도 예술적표현력을 강조한 새로운 형식의 춤을 창조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최승희춤체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민족적성격을 강하게 내포하고있는 춤체라는데 있다.

최승희선생의 창작생애에 관통되여있는것은 민족적인 주제와 형식의 무용작품창작을 기본으로 하였다는데 있다.

그는 무용공연종목들을 조선무용으로 일관시켰으며 반주형식도 민족적색채를 더 잘 살릴수 있도록 가야금과 저대를 넣어 민족악기로 반주하였다.

최승희춤체의 특징은 또한 률동적인 형상력이 강하고 예술성이 높은 춤체라는데 있다.

조선무용을 세계적인 무용으로 발전시켜보겠다는 야심, 피타는 노력끝에 이루어진 최승희춤체는 예술적표현력이 강한 춤체, 감화력이 큰 춤체로 특징지어진다.

최승희선생은 많은 무용작품들에 출연하여 자기의 춤체를 더욱 완성해나가는 한편 조선무용의 형상기법을 과학적으로 정립하고 체계화한 《조선민족무용기본》을 완성하였다.

민족무용발전에서 큰 몫을 차지해온 최승희춤체는 오늘도 그 생명력을 잃지 않고 민족성이 강한 춤체로, 예술적 품위가 높은 춤체로 인정되고 있다.

조선의 무용가로 명성을 떨치면서 세계에 조선무용의 우수성을 널리 과시한 최승희선생의 무용은 아시아와 유럽, 아메리카의 많은 나라들에서 큰 감화력을 불러일으켰으며 이 과정에 국제무대에서 조선무용이 차지하는 지위가 더 한층 높아졌다.

기 자: 절세위인들의 따뜻한 사랑이 있어 최승희선생이 보람찬 삶을 빛내일수 있었다고 본다.

남 수 향: 옳은 말이다. 지난날 망국노의 쓰라린 설음을 안고 이 나라 저 나라를 떠돌아다니던 최승희선생은 그의 예술적재능과 창작성과를 귀중히 여기신 절세위인들의 은혜로운 품에 안겨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인민배우, 조선무용가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무용학교 교장, 국립무용극장 총장으로 보람찬 예술창조활동을 벌려올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최승희선생이 완성한 《조선민족무용기본》을 보아주시고 조선춤의 특성을 잘 살렸다고, 《조선민족무용기본》을 모든 예술단체들에 보급시키고 무용학교에서도 교육강령에 넣어 배워주며 책으로도 출판하고 영화로도 찍어 인민들에게 보여줄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민족무용발전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무용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확고히 고수하고 빛내여나가는데서 최승희춤체를 잘 살려나갈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최승희춤체를 살릴데 대하여 주신 그이의 가르치심은 우리의 무용예술을 한계단 더 높이 추켜세워나가는데서 지도적지침으로 되고있다.

남 수 향: 옳은 말이다. 지난날 망국노의 쓰라린 설음을 안고 이 나라 저 나라를 떠돌아다니던 최승희선생은 그의 예술적재능과 창작성과를 귀중히 여기신 절세위인들의 은혜로운 품에 안겨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인민배우, 조선무용가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무용학교 교장, 국립무용극장 총장으로 보람찬 예술창조활동을 벌려올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최승희선생이 완성한 《조선민족무용기본》을 보아주시고 조선춤의 특성을 잘 살렸다고, 《조선민족무용기본》을 모든 예술단체들에 보급시키고 무용학교에서도 교육강령에 넣어 배워주며 책으로도 출판하고 영화로도 찍어 인민들에게 보여줄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민족무용발전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무용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확고히 고수하고 빛내여나가는데서 최승희춤체를 잘 살려나갈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최승희춤체를 살릴데 대하여 주신 그이의 가르치심은 우리의 무용예술을 한계단 더 높이 추켜세워나가는데서 지도적지침으로 되고있다.

본사기자 남수향

한겨울에도 유희장은 웃음가득

개선청년공원유희장에서

풍치수려한 모란봉의 경치는 낮에 보아도 좋지만 밤에는 밤대로 이채롭다.

지금은 동장군이 한창 기승을 부리는 겨울철이건만 여기 모란봉기슭에 자리잡은 개선청년공원유희장에서는 날이 어둡기 바쁘게 각종 유희시설들을 타고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사람들로 시간가는줄 모르고있다.

황홀한 불장식을 한 은사각을 배경으로 오불꼬불 궤도를 따라 쾌속으로 달리는 관성비행차며 파도치는 바다에서 배를 탄듯 한 느낌을 자아내는 배그네, 마치 락하산이 펼쳐지기 전에 공중에서 자유락하하는듯 아찔한 감을 주는 3중회전반 등을 타고 기쁨과 랑만에 넘쳐 연방 탄성을 터치는 남녀로소들…

그런가 하면 거대한 로케트가 쏜살같이 창공을 오르내리는것만 같은 급강하탑이며 밤하늘을 훨훨 날아예는 회전그네를 비롯한 유희시설들과 타격힘, 날치기사격, 물건집기 등 10여종에 수십대에 달하는 전자오락설비들이 그쯘히 갖추어진 전자오락관들에서도 사람들의 떠들썩한 웃음소리가 그칠줄 모른다.

얼마전 이곳을 찾은 우리에게 개선청년공원유희장의 일군은 겨울철의 이렇듯 류다른 정서가 여기만이 아닌 시안의 다른 유희장들에서도 펼쳐지고있다고 말해주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원래 겨울철에는 유희장을 운영하지 않는것이 관례로 되여있지만 계절에 구애됨이 없이 유희장을 리용하고싶어하는 인민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국가의 인민적시책에 의하여 유희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는것이였다.

추운 겨울철에 유희시설을 정상가동한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인민들에게 언제나 기쁨과 랑만을 안겨주기 위해 이곳 종업원들은 유압계통의 기름을 겨울용으로 교체하고 보온장치를 설치하여 추운 겨울철에도 유희시설을 정상가동할수 있도록 하였다는것이다.

무심히 안겨오지 않는 개선청년공원유희장의 겨울풍경이였다.

우리는 추위를 감감 잊은채 즐거움에 한껏 넘쳐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개선청년공원유희장의 곳곳마다에서 볼수 있었다.

이곳에서 울리는 희열과 랑만의 웃음소리는 한겨울의 추위를 몰아내며 모란봉기슭에 메아리쳐갔다.

본사기자 현은경

우리 민족음식의 우수성

오랜 력사적과정을 거쳐 발전해온 우리의 민족음식은 그 맛과 향기, 모양과 색갈의 독특함으로 하여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다.

우리 민족음식의 우수성은 무엇보다먼저 그 맛이 각별히 좋은데 있다.

우리의 민족음식은 조선반도에서 나는 갖가지 날알과 남새, 물고기, 산나물과 과일 등을 기본음식감으로 하고 간장, 된장, 고추장, 참기름, 마늘, 파, 생강을 비롯한 여러가지 양념감들을 고르롭게 리용한것으로 하여 매개 음식들의 고유한 맛이 잘 살아나고있다.

양념감만 놓고보아도 튀기를 비롯한 기름기있는 음식이나 고기편육에는 초간장 등을, 물고기회에는 초고추장이나 겨자장을, 소고기회에는 참기름과 같은것을 씀으로써 음식의 고유하면서도 독특한 맛을 잘 살리고있다.

우리 민족음식의 우수성은 다음으로 음식의 색조화가 아름다우며 모양새가 좋은데 있다.

조선민족음식은 색조화를 살리는데서 오미자, 대추, 고추와 같은 재료들로는 빨간색을 내고 솔꽃가루, 탁알노란자위 등으로는 노란색을, 쑥이나 채 여물지 않은 콩같은것으로는 푸른색을 냈으며 검은깨, 돌버섯, 검은콩 등으로는 검은색을 냈다. 그리고 은행, 잣, 호두, 밤과 같은 열매들을 리용하여 음식의 모양새를 보기 좋게 하였다.

실례로 신선로, 약밥, 평양랭면을 비롯한 민족음식들은 전반적으로 음식의 색갈이 자연미가 나면서도 아름다움이 잘 살아날뿐아니라 음식의 모양새도 보기가 좋은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눈을 끌어당기였다.

우리 민족음식의 우수성은 다음으로 조리방법이 다양하면서도 과학적이고 음식차림법이 문화위생적인데 있다.

오랜 력사를 가지고있는 우리 민족음식의 조리방법들에는 끓이기, 굽기, 볶거나 지지는 방법과 함께 김치나 쉬움떡, 식혜와 같이 발효시키거나 삭혀서 만드는 방법도 있는데 이런 방법들은 음식의 맛을 최대로 돋구게 할뿐아니라 사람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여러가지 질병들을 예방하거나 낫게 하는 약리작용도 나타낸다.

이와 함께 차거나 매운 자극성이 강한 음식은 작은 그릇에, 슴슴하고 자극성이 적은 음식은 큰 그릇에 담아 상에 올리군 하였으며 음식물의 온도와 향기를 보존하고 외부환경의 오염을 막을수 있도록 음식그릇들마다 대체로 뚜껑을 덮어 리용하군 하였다.

음식종류가 많고 다양한것도 우리 민족음식의 우수성의 하나이다.

우리 겨레가 먼 옛날부터 기본주식으로 리용해온 밥만 해도 흰쌀밥, 콩밥, 비빔밥, 팥밥, 기장밥을 비롯하여 수없이 많으며 별식으로 해먹군 한 떡도 찰떡, 송편, 절편, 쑥떡, 백설기, 취떡을 비롯하여 그 가지수가 대단히 많다.

이와 함께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있는 특색있는 우리 민족음식인 김치도 통배추김치, 석박김치, 나박김치, 총각김치, 달래김치, 갓김치, 미나리김치, 오이김치 등 매우 다양하다.

그리고 사계절 철따라 해먹는 음식들과 설명절, 정월대보름을 비롯한 민속명절을 계기로 만들어먹는 음식, 지방별특산음식들을 비롯하여 그 가지수는 이루 헤아릴수 없이 많다. 공화국에서는 오랜 력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민족음식이 시대적미감과 사람들의 요구에 맞게 나날이 발전풍부화되고있다.

본사기자 황금숙

동지팥죽을 들며

수필

오늘은 동지날이다. 아침에 깨여나 식탁을 마주하니 김이 문문 나는 먹음직한 동지팥죽이 올라있었다. 어제 저녁부터 안해가 팥을 삶는다, 찹쌀가루로 오그랑이를 빚는다 하며 부지런히 일손을 놀리더니 이렇게 아침일찍 동지팥죽이 식탁에 오른것이였다.

뽀얀김을 피워올리는 검붉은 동지팥죽은 안해의 따스한 정이런듯 식을줄 몰랐고 새알같은 오그랑이들은 어서 맛보소 하고 재촉하는듯 싶었다.

뜨끈한 동지팥죽을 한술 떠서 훌훌 불어 입에 넣고 먹음직한 통배추김치를 한 저가락 집어 사각사각 씹노라니 세상에 이보다 더 맛있는 음식은 없는것만 같았다.

맛있다며 부지런히 숟가락을 놀리던 아들애가 죽그릇에서 제일 큰 오그랑이를 집어들자 식구들이 《복을 받았다.》며 즐겁게 웃었다.

해마다 동지날이면 가정들에서 어김없이 쑤어먹는 동지팥죽이요 그럴 때면 나이 한살 더 먹었다는 생각, 다음해에도 가정의 화목과 행복,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게 하는 동지죽이다.

오랜 옛날부터 민속명절의 하나로 쇠여온 동지날의 전통적인 풍습은 세대와 세대를 넘어 오늘도 이렇게 이어지고있는것이다.

돌이켜보면 전통적인 풍습을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적극 살려나가고있는 공화국에서는 민속명절때마다 예로부터 전해오는 민족음식들을 해먹으며 즐겁게 보내고 있다.

설명절만 해도 가정들에서 찰떡이며 지짐, 강정, 떡국을 먹는다.

정월대보름을 맞으면서는 온 가족이 장수를 기원하여 이발이 든든해지고 몸에 부스럼이 나지 않기를 바래서 밤이나 은행, 호두, 잣과 같은 굳은 열매를 깨물어먹기도 한다. 아침식사때에는 덥히지 않은 찬술을 한잔씩 마시기도 한다. 또 이날에는 오곡밥이나 약밥과 함께 9가지 마른나물로 만든 반찬도 빠지지 않는다.

그런가 하면 추석에는 송편이나 설기떡을 비롯하여 가정에서 성의껏 만든 음식을 해가지고 먼저 간 사람들을 찾아 추모하기도 한다.

오늘 지구상에서는 《세계화》라는 미명하에 외풍, 외식이 범람하여 민족적인 풍습과 전통이 점차 사라져가고있다.

하지만 공화국에서는 우수한 민족풍습과 전통이 더 활짝 꽃펴나 생활의 정서를 더해주고있다.

돌이켜보면 이 모든것은 절세위인들의 은혜로운 손길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고 빛내여나가는데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오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우수한 민족적전통을 적극 살려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인민은 예로부터 음력으로 설을 크게 쇠여왔다고, 음력으로 쇠는 설을 전통적인 명절로 크게 쇠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해당 부문에서 명절물자준비와 공급사업을 짜고들어 인민들이 설명절을 더 잘 쇠게 하여야 한다고 이르시였다. 언제인가는 정월대보름과 관련하여 전해져내려오는 민족적풍습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면서 우리 인민들은 예로부터 이날에 마른나물 9가지를 가지고 반찬을 만들고 오곡밥을 지어먹었으며 엿도 달여먹었다고, 우리는 조상대대로 내려오면서 전해오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풍속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한다고 하시였다.

이뿐이 아니다. 추석날에 조상의 묘를 찾아가는것은 우리 인민의 민족성을 살려나가는 아주 좋은 풍속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인민은 예로부터 한해에 조상의 묘를 두번 찾아가군 하는데 청명날에는 조상의 묘에 잔디를 입히느라고 찾아가고 추석날에는 햇곡식으로 떡을 비롯한 여러가지 음식들을 만들어가지고 조상을 찾아가군 한다고, 그러므로 인민들이 청명날이나 추석날에 조상의 묘를 찾아가는것을 계속 장려해야 한다고 가르쳐주신 위대한 장군님이시다.

무릇 하나의 물방울에 우주가 비낀다는 말이 있다.

오늘 누구나 즐겁게 쇠고있는 하나의 민속명절이나 민족음식 한가지에도 이렇듯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문화를 귀중히 여기시는 절세위인들의 애국, 애족, 애민의 숭고한 세계가 뜨겁게 깃들어있는것이다.

본사기자 박철남

민족기악유산—《신아우》

슬기롭고 재능있는 우리 민족이 창조한 우수한 민족기악유산가운데는 《신아우》도 있다.

《신아우》는 조선봉건왕조후반기에 활동한 민간기악단과 개별적인 연주가들속에서 널리 연주된 대표적인 민간기악곡이다.

《신아우》에 대하여 함경도지방에서는 퉁소음악으로 리용된 악곡이라고 하여 퉁소《신아우》, 전라도를 중심으로 한 지방에서는 저대음악으로 많이 쓰인 악곡이라고 하여 저대《신아우》라고 하였다.

함경도지방의 퉁소《신아우》는 퉁소가 광범히 리용된 고려시기에 이미 창조되였다고 볼수 있다. 함경도지방의 민간기악곡의 하나로 전해오는 이 곡은 이 지방에서 성행하였던 《마당놀이》(함경도 일부 지방의 민속가무놀이)에서 퉁소명수들에 의하여 다듬어진 악곡이다.

퉁소《신아우》는 단천, 리원, 길주 등지를 중심으로 한 함경도지방에 널리 보급되여있었다. 민간의 이름난 퉁소명수들에 의하여 적을 무찌르는 싸움에서 군가로 많이 불리웠으며 민속명절놀이때 성황리에 연주되였다.

퉁소《신아우》에는 우리 선조들의 애국적인 감정이 잘 반영되여있다. 함경도지방에서 독주, 중주 및 합주곡으로 연주되여온 퉁소《신아우》는 개별적인 지방에 따라 여러가지 변종이 있으나 그에 담겨진 전투적기백과 호소성으로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승전곡을 듣는 감을 주고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었다. 그 대표적인것은 리원지방의 퉁소《신아우》였다.

높고 길며 호소적인 서두음에 뒤이어 빠르고 경쾌한 악구들이 힘차게 전개되는 함경도지방의 퉁소《신아우》는 마치 적진을 향하여 말을 타고 달려가는듯 한 느낌을 준다.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기악유산인 《신아우》는 오늘 공화국에서 전투적인 합창곡 등으로 발전하여 널리 불리우고 연주되고있으며 그 음조들은 새 음악창작의 바탕으로 되고있다.

본사기자

사화

동래성부인 (2)

글 리빈, 그림 리성일

다음날 오후 적들은 세개 방향에서 동래성을 공격해들어왔다. 부산을 타고앉은 승자의 기분속에 기세가 등등해서 미쳐날뛰는 놈들에 의해 동래성은 어째볼 사이도 없이 놈들의 겹겹한 포위에 들게 되였다.

성문앞으로 오만하게 다가온 적장은 통역의 입을 빌어 성대문다락우에 위풍당당히 서있는 송상현에게 고함을 쳤다.

《듣거라. 우리 대군은 명나라공략의 대의를 품고 이렇듯 출병하였다. 그런데 그 길을 너희들이 막아나섰으니 그냥 스쳐지날수 없게 되였다. 너희들은 다치지 않을테니 길을 열어라. 만약 말을 듣지 않는다면 이 동래성도 부산참화의 변을 당할것이다.》

송상현은 즉시에 찌렁찌렁 우뢰같은 호령으로 놈을 꾸짖었다.

《소가 웃다 꾸레미터질 수작을 걷어치워라. 뭐 길을 열라구? 그따위 수작에 움직일 사람은 이 땅에 한명도 없다. 똑똑히 듣거라. 우린 목숨을 내놓는 한이 있어도 길을 절대로 열지 않겠다.》

기고만장해서 웨치던 왜장의 얼굴은 성우의 사람들에게도 확연히 알릴만큼 대번에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미칠듯 악이 난 놈은 수만의 병졸들을 내몰아 성을 들이쳤다. 성난 파도같은 험악한 기세에 동래성은 어느 순간에 뒤집힐지 모르는 쪽배마냥 위태롭기 그지없었다.

일본사무라이들은 성벽에 울타리치듯 참대사다리를 올려뻗치고 새까맣게 기여올랐다. 수천수만의 조총탄이 동래성사람들의 머리우에 우박처럼 들씌워졌다.

성안에서는 부사 송상현의 지휘밑에 군사들과 고을사람들, 피난민들이 한덩어리가 되여 활을 쏘고 칼을 휘두르고 돌덩이와 홰불을 들퍼부으면서 용감하게 싸웠다. 결사의 각오와 불굴의 의지가 방어진에 차넘쳤다. 허나 적들은 너무나도 많았고 너무나도 악착했다. 우리에게는 없는 놈들의 조총이 우리 사람들을 무리로 쓰러뜨렸다.

성의 운명은 경각에 이르렀다. 송상현은 누구보다도 이에 대하여 잘 알고있었다. 이미 각오하였던 최후가 눈앞에 다가온것이다. 그는 순령수에게 먹을 갈라고 명령하였다. 연적의 맑은 물이 잠간사이에 벼루에서 새까만 먹물로 변하자 송상현은 붓을 들어 부채에 몇자 휘갈겨썼다.

《이 부채를 우리 부친께 전하고 돌아올 때 조복을 가져오게.》

…

《홰를 가져오라. 홰를!》

《달라! 홰자루! … 홰자루!》

동서남북 네 대문에서는 말할것 없고 원쑤들이 기여오르는 모든 성첩들에서 다 홰를 찾았다. 정황은 급한데 화살은 적으니 그럴수밖에 없는것이다.

홰자루를 매기에 정신이 없던 금섬은 별안간 나타난 순령수가 《사또님의 조복을 주사이다.》라고 했을 때 흠칫 놀랐다. 갑옷을 입고 싸움을 이끄는 사람이 어찌하여 조복을 찾는가? 다가드는 불길한 예감에 더럭 겁이 났다. 황황히 방으로 들어가 장농에서 조복을 꺼냈다. 그것을 순령수에게 넘겨주는 사이에도 그것이 무시무시한 그 어떤 참변을 예고하는것만 같아 속이 떨렸다. 끝내 진정을 못한 그는 이 사연을 시아버지에게 알리려고 안채로 들어갔다. 누군가의 위안을 받지 않고서는 못견딜 마음이였다.

중환자인 시아버지는 늘 그러하듯 조용히 누워있었다. 눈을 감고있는것으로 보아 잠이 든듯싶었다. 깨워서는 안되였다. 하는수없이 그냥 돌아서는 그의 눈에 늙은이가 손에 든 부채가 밟혀왔다.

(?!)

이상하였다. 지금은 부채를 쓸 철이 아니지 않는가. 또 그것이 남편의 애용품이여서 더욱 놀라왔다. 그는 저도 모르는 사이 부채에게로 끌려갔다. 아직 먹물도 채 마르지 않은 남편의 글이 부채우에서 튀여나올듯 확 안겨들었다.

외로운 성에 달무리 비껴들제
벌려있는 진들마다 사기 더욱 높아라
아버지에 대한 자식의 효도보다
임금에 대한 신하의 충정이 더욱 중하기에…

금섬은 눈앞이 캄캄하였다. 이 글은 성이 깨여지게 되였으니까 나라위해 죽음을 각오한 남편이 아버지에게 영결하직을 고하는 글이 틀림없다!

금섬은 두손으로 머리를

움켜쥐였다. 정신이 아찔아찔하고 머리가 빙글빙글 도는것이 당장 쓰러질것만 같았다.

잠시후 그는 혀를 깨물고 마음을 가다듬었다. 그러고보니 조복을 가져간 남편의 뜻이 리해가 되였다.

예로부터 충신들은 나라에서 준 옷을 입고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던가. 성의 운명도, 남편의 운명도 이제는 명백해졌다.

《아버님, 저도 그이를 따라가오이다.》

시아버지에게 큰절을 드리며 격하게 외웠지만 눈물만 비오듯 쏟아질뿐 목이 열리지 않아 목소리는 속에서 잦아들어버렸다.

하직인사를 하지 않고서는 발길을 돌릴수가 없었다. 잔명이 며칠 남지 않은 시아버지를 마지막까지 구완해드리지 못하게 된것이 죄스럽기 그지없었다.

《아버님, 이 불효녀 떠나가오이다!》

있는 힘을 다 쓴탓인지 이번에는 목이 활 열리며 목소리가 크게 울렸다. 했건만

늙은이는 꿈쩍하지 않았다.

(?!)

가슴이 섬찍해난 금섬이 늙은이의 팔을 흔들어보니 장작개비마냥 뻣뻣하였다.

(운명하셨구나. 아이고!)

아들의 부채를 받아보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줄 알아차린 금섬은 로인의 고결한 정신에 격동되였다.

(그 아버지에 그 아들이로구나. 나도 그 지아비에 그 안해로다!)

아들과 함께, 성과 함께 운명을 같이하는 시아버지의 값비싼 최후는 금섬의 결심을 무쇠로 굳게 다져주었다.

그가 남편을 찾아 장대에 이르렀을 때에는 벌써 성문을 깨고 밀려든 적들이 우리 사람들을 닥치는대로 찌르고 베면서 미쳐날뛰고있을 때였다. 장대에는 남편이 없었다. 누군가가 그를 남문에서 봤다고 알려주었다. 금섬은 원쑤들이 살판치는 한가운데를 내달렸다.

송상현은 조복입은 몸이 피투성이가 되여 성돌밑에 쓰러져있었다. 그는 피로 물든 칼을 으스러지게 틀어쥔채 눈을 부릅뜨고 굳어졌다. 오랑캐에게 짓밟히는 땅을 두고는 차마 눈을 감을수 없었던 모양이였다.

금섬은 남편의 눈을 살며시 내리쓸면서 목놓아 울었다. 소중한 남편에게 바치는 마지막정성이였다.

이때 부하들을 한무리 이끈 적장이 징그러운 상통에 희색을 띠고 다가왔다.

분노가 이글거리는 눈으로 놈을 한참 쏘아보던 금섬은 태연히 품속에서 비수를 꺼내여 제 목을 찌르고는 남편의 옆에 쓰러졌다.

그의 눈도 뜬채로 있었다. 오히려 눈은 그앞에 선 왜장이 감았다. 놈은 마치 중풍이라도 만난듯 부들부들 떨었다.

금섬의 죽음은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다. 나라위해 한몸바친 장부의 장한 죽음을 더욱 빛내여준 이 나라 녀인들의 아름다운 마음이 낳은 승리자의 죽음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끝)

야담

초독보다 못한 고을원

허허벌판에 흙을 높이 쌓고 그우에 새를 잡기 위한 그물이나 주살 같은것을 설치해놓은것을 초독이라고 한다.

한 조정관리가 고부에 고을원으로 임명되여 내려갔으나 사무처리에 완전히 깜깜이여서 하루종일 우두커니 앉아만 있었다.

그 모양은 마치 흙으로 빚어만든 등신같았다.

한 사람이 관가에 송사를 하였건만 고을원이 이 모양이다나니 억울한 사정을 풀지 못하였다.

그 사람은 이윽토록 태수를 바라보다가 《이 초독이 어느때에야 입을 열려나?》라고 하였다.

그러자 옆에 있던 사람이 히물히물 웃으며 《태수와 초독을 비겨보면 어느 편이 더 나을것 같나?》 하고 물었다.

송사를 한 사람은 《초독은 그래도 그우에 그물이나 주살 같은것을 설치하면 어찌다 매라도 잡지요. 태수는 한가지 일도 하는것이 없으니 오히려 초독보다 못한것 같수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어 옆사람이 호탕하게 웃더니 《무슨 당치 않은 소릴. 태수도 술잔쯤은 잡았다 놓았다 할줄 알지 않겠소?》라고 하였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허리가 끊어질듯이 웃었다.

주 소 : 평 양 통 일 신 보 사 (해외동포여러분의 서면련락주소: 조선평양 국제우편국사서함 제150호) 전화: 책임주필실 366-0732, 편집국 366-0289

편 집 위 원 회